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제와  
교사들의 어려움 및 요구

202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송 민 지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제와  
교사들의 어려움 및 요구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송 민 지


# 인 준 서

송민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12월

심사위원장 전 홍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권정숙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배지희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제는 어떠한가?
2.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1:1 개별 면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교사당 2~3회의 면담이 이루어져 총 28회의 면담이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면담 전사본과 면담 노트, 연구자 저널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용을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1인과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가진 2인의 보육교사에게 면담 내용, 자료 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

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더불어 연구 결과 및 해석에 대해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 교사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해석의 정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의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장소를 탐색하고 놀이공간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울타리 안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경우 영·유아들은 근처 대체 놀이터, 공원, 하천, 아파트의 공용 시설, 회사 빌딩 내 유희 시설 등에서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실외놀이 공간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공간에 따라 영·유아들의 놀이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공원, 잔디 광장 등에서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낼 때는 동·식물을 탐색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바람개비·원반·끝차 등 혼자서 끌거나 던지는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였다. 또 밧줄, 파라슈트 같은 교사들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한 반의 영·유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잇감(도구)의 활용이 많았다. 어린이집 근처의 대체 놀이터에서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낼 때는 조합 놀이대, 그네 등을 이용하여 신체활동이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계절과 날씨의 급격한 변화, 영·유아들의 컨디션에 따라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과 교실, 복도 공간에 설치된 고정 기구인 평균대, 트램폴린 등을 이용하고 숨바꼭질, 잡기 놀이 등의 몸을 이용한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둘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육실과 유희실의 작은 크기로 인하여 실내 대체 활동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았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여 놀잇감(도구)을 설치하여 놀이를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실내·외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실내·외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크기나 위치의 제약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체활동 도구(놀잇감)가 한정적이어서 어려움을 느꼈다. 실외에서는 교사와 영·유아들이 함께 이동할 때 놀잇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보조 교사의 지속적인 배치를 희망하였다. 실내에서는 놀잇감(도구)의 보관 장소의 협소함으로 다양하고 큰 크기의 놀잇감(도구) 구매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린이집 근처의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사들은 놀이터의 수준이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적합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영·유아들의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인솔하여 실외놀이 공간까지 이동하며 만나는 건물, 차, 행인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폭염, 폭우, 한파,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영·유아들의 컨디션, 유행성 질병 등으로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실시 하는 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교사들은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때 영·유아들의 놀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균형 있는 신체활동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실·내외 신체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대체 놀이터의 시설 변경이 필요하고, 실외놀이 공간까지의 이동 거리가 멀거나 공간 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대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실내 유희실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신체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의 실내 유희실이 마련된다면 영·유아의 신체활동이 질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교사들 스스로 영·유아들과 놀이할 때 수준 높은 놀이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수동적인 강의를 듣는 형태의 교사 교육에서 더 나아가 특별활동 체육 교사,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의지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싶어 하였다.

본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외와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경험과 노력, 요구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시설 및 유희실 공간을 구성하고 활동 지원 계획 및 방향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6
3. 연구자 .....	7
<b>II. 이론적 배경</b> .....	<b>9</b>
1. 영유아기 신체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 .....	9
2. 신체활동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	10
1) 신체 발달 .....	10
2) 언어 발달 .....	12
3) 인지 발달 .....	13
4) 사회성 발달 .....	15
5) 정서 발달 .....	16
3.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	18
1)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과 신체활동 .....	18
2) 어린이집 신체활동에서의 교사 역할 .....	21
3) 실외놀이와 신체활동 .....	23
<b>III. 연구 방법</b> .....	<b>26</b>
1. 연구 참여자 .....	26
2. 연구 절차 .....	35
3. 자료 분석 .....	40

4.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	43
------------------------	----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	45
1)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	45
2)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	51
2.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	55
1) 협소한 물리적 공간 .....	56
2) 놀잇감(도구) 보관과 이동의 어려움 .....	59
3)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외부 환경 .....	61
4) 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실외 신체활동 .....	63
3.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 .....	65
1) 신체활동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와 놀잇감(도구) .....	66
2) 신체활동 관련 내용에 초점을 둔 교사 교육 .....	70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75
2. 결론 및 제언 .....	8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	27
<표 2> 면담의 주요 질문 .....	38
<표 3> 분석된 자료 .....	41
<표 4> 범주화 수정 과정 .....	42
<표 5> 연구문제에 따른 최종 범주 .....	4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출생부터 생득적인 반사를 통해 환경을 경험하고, 이후 감각이나 운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Gallahue, 1995). 영아는 자신의 손과 발의 움직임에 흥미를 보여 빨아보거나 당겨 보거나, 흔들어 보며 몸을 움직인다. 이후에는 점차 더 넓은 범위의 주변 대상으로 탐색이 이루어진다(Piaget, 1952). 이 시기에 뒤집기, 기기, 앉기, 서기, 걷기와 같은 일련의 신체 발달이 나타난다. 영아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증가하고 이는 여러 영역의 발달을 촉진한다. 영아 시기를 보내며 신체 발달을 이룬 유아들은 또래들과 놀이에서 이전보다 세련된 신체 기술을 사용하고 적극적인 탐색을 주도한다(이봉선, 2008).

영·유아기에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은 신체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 능력의 발달이다. 출생 이후 약 만 4세까지가 기본 운동 능력 발달의 적기이다(Gallahue & Ozmun, 1995). 이 시기에 기본 운동 능력을 전문화하거나 세분화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다음 단계의 성숙한 운동 능력들을 발달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allahue, 1995). 따라서 영·유아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평생 사용할 운동 능력의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기에 습득된 운동 능력은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되며, 소근육 운동능력을 발달시키는 선행운동이 된다.

신체활동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의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영·유아 신체활동량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그로 인해 기초체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신체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보통 오전 9-10시에 등원하여 오후 16-17에 대부분 하원하며 평균 7.7시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의 신체활동은 30분, 주 1회 40.9% 정도 실행되며(박미숙, 2014), 놀이터에서 놀이하는 경우는 주 2-3일 정도이며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김길숙, 2016). 또한 서울시 아동 종합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0~9세 아동들의 놀이 및 여가 활동 유형에서 TV, 동영상 시청, SNS, 게임 등 수동적이고 신체활동이 거의 없는 소극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세 아동들의 TV, 동영상 시청, SNS, 게임 합산 시간이 평균 5.86시간으로 실·내외에서 뛰어노는 평균 2.73시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신체활동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유정애, 진연경, 2019). 더불어 영·유아들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과 놀이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노주형 외 2016), 학부모들은 학습 능력 발달을 우선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감소하고 있다. 미국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turm, 2007)에서도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르는 시간과 신체활동과의 관계가 반비례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만 3세 이상 유아의 90% 정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육아정책연구소, 2020), 유아교육기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놀이에 대한 관점과 활동 지침이 놀이의 실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보라, 권미랑, 2013). 하지만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놀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실외놀이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외

놀이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 대신 유아교육기관의 실정에 따른 실외놀이 활동이 유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조금주, 2015)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보육실, 유희실이 포함된 실내 공간과 놀이터라 불리는 실외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실내 공간인 보육실을 구성할 때 Frost(1992)가 제시한 것처럼 영역을 구분하는데 실외 공간도 이와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구성은 영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영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놀이영역을 구성하고 활동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교육부, 2023). 실내 공간은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으로 나뉘며, 정적인 영역으로는 언어 영역, 수·조작 영역, 과학 영역, 미술 영역으로 구성되고, 동적인 영역으로는 음률 영역,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신체 영역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교육부, 2023; 엄정애, 2009; 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 2008).

선행연구(Wellhousen, 2002; 이기숙 등, 2006)에서는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여러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실외놀이도 영역의 구분과 인접 영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외 공간은 대근육 운동 영역, 물·모래놀이 영역, 동·식물 기르기 영역, 극화 놀이 영역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실내 공간과 마찬가지로 실외 공간을 흥미 영역별로 구성하면 영·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이상은, 2007).

조경희와 신동주(1999)는 실내·외 놀이 환경에서 유아의 놀이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실외 환경에서는 혼자 놀이보다 집단놀이가 더 많이 관찰되었고, 극화놀이·규칙 있는 게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조성연과 박은혜(2014) 연구결과 놀이를 구성·확장하는 요소 중 하나는 놀이공간이며 이는 영·유아의 놀이성과 놀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하게

여혜옥(2017)의 연구에서는 놀이공간의 위치, 크기, 구성하는 놀잇감 등에 따라 영·유아들의 놀이 양상이 변화하기에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2024)에 따르면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옥외 놀이터를 원칙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49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근 놀이터를 자체 옥외 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 동일 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 수 확인, 관리 주체의 사용 승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근 놀이터로 인정된다. 더불어, 업무용 시설이 밀집된 지역 등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 놀이터의 운영이 허용된다. 대체 놀이터는 인근 놀이터와 어린이집 내부의 옥내 놀이터(실내·옥외 중간·옥상 놀이터)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 2024).

2023년 말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8,954개소이며, 이 중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9,589개소이다(통계청, 2023). 이는 놀이터 설치가 필수가 아니며 대체 놀이터에서 실외놀이 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인 19,365개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숙(2019)의 연구결과, 경기도 S시의 4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에 강당이 설치된 곳은 22곳 중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재 영아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경(2008)의 연구에서도 어린이집 273개소 중 99개소(36.3%)에서 어린이집 울타리 내에 실외놀이 공간과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사의 실내 대체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한 김유나(2022)는 교사들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실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기후 변화 같은 제한점으로 인하여 실외놀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내에서의 신체활동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전수경(2009)과 최숙자(2021)는 영아들에게 어린이집 주변의 공공 놀이터는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점과 안전·위생상의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연구에서는 미세먼지·안전 문제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실외에서의 신체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놀이 체육 활동 공간(강당, 유희실)의 의무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동훈, 2018). 장주희(2016)는 서울시 소재 직장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외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어린이집에서는 주변 자연환경을 산책하거나, 기후가 좋지 않은 경우 대체 활동으로 실내에서 대근육 활동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실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와 신체활동이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지대하나, 최근 실외 공간에서의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 등 열악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실외놀이를 마음껏 즐길 기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효진, 2018). 영·유아 교사의 실내 대체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운영현황에 관한 김유나(2022)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한 횟수는 2~3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비율 중 53.9%를 차지한다. 응답한 교사의 86.4%가 바깥 놀이를 선호했으나 날씨·미세먼지(57%)로 인하여 실내 대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 실내 놀이와 다른 방향에서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영·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실외놀이는 공간 문제, 실외놀이 활동 프로

그램의 미흡함, 안전 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고, 실내 놀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상은, 2007).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서울시 어린이놀이터의 질적 수준 차이 연구(김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 이새별, 김지연, 2019; 이숙재, 1994; 이창균, 2017; 임은혜, 2022), 연령별로 실외에서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고정미, 2008; 고효진, 2018; 김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 신동주, 신혜영, 박소연, 1997; 오태희, 2010; 이동연, 2021)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대체 활동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연구(김유나, 2022; 오범주, 2019; 이숙현, 2022)는 이루어졌지만 실·내외에서 어떤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 연구는 미흡하기에 여러 유형의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내·외 공간에서 신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 내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체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2. 연구문제

1.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재는 어떠한가?
2.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경

힘하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3.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 3. 연구자

본 연구자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년, 직장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근무한 어린이집 두 곳 모두 실외놀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

2년 동안 근무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단지 아파트 안에 위치하였다. 90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재원하였지만 어린이집 담장 안에 실외놀이터가 없어 단지 내 놀이터 3곳에서 실외 자유 놀이를 하였다. 단지 내 놀이터의 거리는 영·유아들과 손을 잡고 걸었을 때 가까운 곳은 편도 5분이 소요 되었고, 먼 곳은 편도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였다. 놀이터 3곳은 복합 놀이대로 구성 되었고, 수준이 나뉘어 있어 연령별로 선택하여 이용하였다.

5년 동안 근무하였던 직장어린이집은 도심 속 회사 밀집 지역에 위치하며 60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재원하였다. 직장어린이집 내부에는 유희실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인근에 대체 놀이터가 없어 시청광장, 덕수궁, 청계천 등의 공간에서 실외 자유 놀이를 실시하였다.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1년 6개월 이상 바깥 활동이 전면 금지되고, 보육실과 실내 유희실에서만 영·유아들과 일과를 진행하였다. 부모님들 출근 시간에 맞춰 등원 한 영·유아들은 교사들과 함께 일과를 보낸 후 저녁 식사 후 하원하곤 하였다. 유희실에서 오전·오후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영·유아들은 다양한 놀잇감(도구)를 사용하여 신체활동을 즐겼다. 걷기, 뛰기, 점프하기 등의 이동 동작의

기술을 익히며 그 속에서 놀이를 찾는 영·유아들을 관찰하였다. 넓은 유희실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하루에 1시간 30분 이상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움직이는 영·유아들을 관찰하며 이전에 근무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떠올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체 놀이터가 어린이집과 가까웠지만 실내 유희실의 크기는 협소하여 영·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실·내외 공간을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던 시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어린이집·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기관 상황과 놀이 경험을 나누었다. 교사들의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일과를 운영할 때 공통점과 다른 점을 느꼈다. 어린이집 담장 안에 실외놀이터가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지원하는 놀이는 연구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실외놀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였다. ‘놀이터’가 영·유아들에게 놀잇감이자 놀이의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어린이집 담장 내에 놀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이러한 경험과 질문들을 계기로 본 연구자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신체활동 운영 경험과 그로 인한 어려움, 요구를 탐색해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영유아기 신체활동의 개념 및 필요성

영아와 유아들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고 조절하며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게 된다. 신체 인식을 통하여 실내·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대·소근육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유아기에 경험한 즐거운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신체를 움직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체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이연승, 2020).

신체활동이란 영·유아들이 신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 운동 활동과 창의적 신체 표현을 포함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9). 기본 운동 활동은 주로 기본 동작을 이동하며 움직이기,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신체활동 도구나 시설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창의적 신체 표현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영·유아가 창의적 표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주연, 2011).

영·유아기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개별 또는 그룹으로 참여하면서 신체운동을 즐기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형우, 2017).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의 총론에 따르면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하루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하여 편성·운영할 것을 명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0). 만 3-5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들이 1일 60분 이상 바깥 놀이 및 실내 대체 활동으로 신체활동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Lampert(1999)는 신체활동의 학습 경험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즐거

움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개념화하면, ‘좋은 신체활동’은 영·유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움이 즐거움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즐거운 경험이 깊이 각인되어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즐겁고 의미 있는 신체활동’이 좋은 신체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성에도 일치하는 개념이다. 개정된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와 배움, 발달을 사전에 판단하기보다, 유아는 자신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한다는 실제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교사는 유아가 몸을 이용한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과 감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것이 진정한 배움에 이르도록 돕는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이연승, 양혜련, 변선주, 조경미, 2020).

## 2. 신체활동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

### 1) 신체 발달

신체 발달은 신체가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 뇌와 신경계의 발달, 성장과 변화, 신체기능의 변화, 자기 신체를 스스로 사용하고 움직이는 운동 능력인 감각 및 지각의 발달, 소근육 운동과 대근육 운동 능력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발달과 관련되어 이루어진다(강순희 등 2017; 신은영, 2017).

태어난 직후에는 목을 가누지 못하던 영아가 점차 뒤집기를 시작하고, 배밀이를 통해 이동을 시도하며, 생후 약 12개월이 되면 스스로 걷기 시작한

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영아의 운동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영아의 놀이 세계가 확장된다. 기기, 서기, 걷기와 같은 새로운 신체적 기술은 숙달될 때까지 연습하고 기술이 숙달된 후에 영아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Anselmo, & Franze, 1995; Frost, Wortham, & Reifel, 2005).

이후 유아기의 운동 발달은 자신의 움직임에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운동기능의 발달은 근육 및 골격의 발달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태선 등, 2000). 이처럼 유아의 운동 발달은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내어 외관상 쉽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강해지고 점차 빨라지며 민첩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지며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신체를 통한 소근육과 대근육 능력 및 지각과 감각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자기표현 능력이 가능해진다(신은영, 2017). 이성주(2015)는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평소 눈과 귀로 접하던 그림책의 경험을 보고 듣는 경험의 변화를 통해 실험집단 유아들의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승주(2024)의 연구에서는 평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유아들이 지속적인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신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능숙함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경아(2014)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기본 운동 능력 중에 유아의 이동운동과 조작운동 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은 유아기를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는 운동 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데 효과적이다. 즉, 신체활동은 유아 신체 성장을 촉진하고 기본 운동 능력 발달과 행동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언어 발달

출생 후 첫 돌을 지나면서 영아는 의미 있는 첫소리를 발화하기 시작하며, 그 이후에 언어발달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어휘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모국어의 문법 규칙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도 점차 증가하고 이해 언어가 표현언어보다 발달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점차 원활해진다(김희진 외, 2004).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주변에 대한 탐색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적·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발전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증가한다. 실외놀이는 영아의 언어발달과 생성에 효과적이다. 제한된 실내 공간보다 풍부한 음량과 음조를 만날 수 있으며 바깥 공간에서 신체활동과 언어를 조화시킨 음률 활동을 할 수 있다(Wellhousen, 2003). 즉, 실외 활동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와 냄새, 여러 가지 사물의 느낌 등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들은 영·유아의 언어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여 말하기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언어발달을 더욱 강화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는 영·유아가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듣고 말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기본적인 문해력을 익혀 일상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영역을 두었다. 영·유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을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또래와 교사의 언어적 자극을 경험하며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신체활동과 언어발달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현장에서 친숙한 매체 중 하나인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황주연(2011)의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실험 초기 제한된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표현하던 만 3세 유아들이 풍부한

어휘 사용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미화(2008)는 동화를 활용한 동작 표현활동이 그리기 표상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화(2015)의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활동이 취학 전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주(2024)의 연구에서는 신체 표현활동을 한 실험집단의 언어능력이 그리기 활동을 한 비교 집단보다 높은 점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흥미로운 동화 내용을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몰입하여 어휘의 의미와 동화의 구조를 신체로 표현하며 언어능력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동시를 활용한 신체 표현활동도 언어능력 발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영란, 2012).

영·유아는 신체활동을 통해 비·언어적 자극을 받고, 교사나 또래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어휘와 표현 방법을 활용하며 언어발달이 촉진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은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증진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언어 표현력과 언어능력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장미희, 2024).

### 3) 인지 발달

출생 후 영아는 주변 환경의 자극에 반응하고 사물을 던지거나 빨기 등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영아의 인지 발달은 영아의 다른 발달영역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Piaget, 1952). 이숙재·이봉선(2007)의 연구에 의하면 만 2세 영아들은 모래를 만지며 다양한 용기를 이용해 담고 쏟기, 모래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찾기, 생일케이크를 만들고 노래 부르는 활동을 통해 대상영속성, 구성놀이, 상상놀이와 같은

인지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영·유아들은 실외놀이를 통해 계절과 기후, 자연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동식물의 성장 과정을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탐색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놀이 기구를 활용하며 여러 관계 개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전수경, 2008).

영·유아는 움직이며 계속 생각한다. 인지 발달 단계는 세상을 지적으로 표상하고 지각하는 발달의 단계로 유아는 인지가 발달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간다. 신체활동을 통한 인지 발달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의도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이라 할 수 있다(변영신, 2005). 유아기의 모든 자발적인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의 지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런 지각 능력은 자기 신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다(Gallahue, 2004).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삶에 주어지는 내적, 외적 자극에 민감히 반응하고 행동에 있어 오류를 탐지하여 수정, 보완하며 더 목적적이고 숙련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영주, 2005). 이처럼 유아기 동작을 통한 지각 발달은 자기의 몸과 주변 환경을 이해하게 되며 유아기에 있어 인지 발달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강연홍(2007)은 신체활동이 그림책을 통해 유아의 다중지능 발달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하위영역별로 구분하면,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공간지능, 개인적 지능 등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활동 게임을 도입한 것이 유아의 주의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은미(2009)는 유아들이 게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집중력과 관심, 지구력 등이 필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과 논리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해 준다면 유아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사회성 발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기금심(2004)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내는 행동을 사회·정서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은 또래와의 경험을 통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래들과 함께 신체활동에 참여한 영·유아들은 부모나 교사에게서 받을 수 없는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다(조아라, 2023). 걸음마기의 영아는 실외놀이에서 미끄럼틀을 왜 순서대로 타야 하는지, 장난감 기차를 왜 친구에게 양보해야 하는지, 크레파스를 왜 나눠 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실외놀이 갈등 상황에서 교사는 영·유아에게 또래의 행동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과 적합한 언어적 표현을 배우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체활동 중 협력하기, 나누기, 함께 계획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고 습득하는 상황에서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 증진된다(이명란, 2015).

신체 표현활동을 소집단으로 실행했을 때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김미진, 2008). 또한, 신체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의사소통, 도움주기, 의도성, 나누기, 주도적 배려, 감정이입 및 조절, 접근 시도하기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최진아, 2010).

이만수(2014)는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신체활동 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발달시키며 사회

성 발달을 촉진한다. 이수진, 서현아, 한의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또래 협동 신체활동에 참여하여 언어와 신체를 활용한 빈번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래와의 관계가 증진되었다. 그리고 유아들은 또래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조절력이 향상되었다.

이렇듯 영·유아는 신체활동을 통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대처 능력을 발달시킨다.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감정을 표현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다스리며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성을 향상한다고 할 수 있다.

## 5) 정서 발달

영·유아의 정서 발달은 성격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며 신체활동을 통해 주변의 환경과 공간을 탐색하고 자신의 욕구 및 감정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김경희, 1995). 걸음마기에 접어든 영아는 빠른 신체 발달로 인해 운동 능력과 이동성이 향상되면서 스스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집안 곳곳의 물건들을 만지며 탐색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또한,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영아의 시도가 실수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주위의 격려나 칭찬을 받게 되면 영아의 자율감이 촉진된다(공인숙 외, 2002). 신체활동은 영아의 탐색 활동과 자율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실외놀이 환경은 영아들에게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며, 영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놀이 기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율성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전수경, 2008).

유아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란 자신

의 특성, 즉 신체적 외모, 성, 행동, 경향, 정서, 능력, 흥미 등에 대하여 느끼고 있는 생각, 관념, 태도,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고훈, 2005).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신체활동은 활동을 수행한 후 성취감 및 만족감을 느끼며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Dougheherty(1979)는 신체활동이 신체를 활용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탐색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체활동은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 표현 활동은 유아의 창의적 신체 표현능력과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을 즐기는 영·유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감정을 가질 뿐 아니라 교사나 또래와 같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영·유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또래와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맺는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운삼 외, 2017).

유아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및 집중력향상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김은미, 2009).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유아 시기의 정서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의 경험이 정서 발달에 이어지므로 유아의 성장에 정서지능 발달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인상, 2006).

따라서 영·유아의 정서 발달에 신체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영·유아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 해소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과 격려가 필요하다.

## 2.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 1)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과 신체활동

유아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은 영·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된다. 놀이는 진행되는 공간에 따라 실내 놀이와 실외(바깥)놀이를 구분되며, 실내와 실외는 똑같이 중요한 공간으로서 교육과정의 모든 영역이 다루어질 수 있다(나귀옥, 2016).

영유아보육법(2019)은 실내·외 물리적 환경에 대해 건축적 요소, 시설 설비, 1인당 면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실로 대표되는 실내 환경과 실외놀이터로 대표되는 실외 환경은 각각 기준을 마련하여 영·유아에게 적합한 구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유아 1인당 4.29㎡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그 가운데 보육실은 1.98㎡(만 3세 이상 기준)이다. 정원 50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유아 1인당 최소 3.5㎡ 이상의 면적을 갖춘 실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구성은 영·유아가 자신의 움직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영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놀이영역을 구성하고 활동자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교육부, 2024). 이에 따라, 실내 공간구성은 정적인 영역과 동적인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정적인 영역으로는 언어 영역, 미술 영역, 수·조작 영역, 과학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동적인 영역으로는 음률 영역, 역할 영역, 쌓기 영역, 신체 영역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교육부, 2018; 엄정애, 2009; 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 2008). 어린이집의 보육실과 유희실, 계단, 복도 등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희실과 보육실의 공간을 이용하여 뛰기, 걷기, 균형 잡기, 점프 등의 대근육 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며, 각 영역의 자유 놀이 중 블록 놀이, 그리기 및 색칠하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하기와 같은 소근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체활동들은 영·유아들이 신체를 움직이며 발달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은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력, 감각 발달 등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실외놀이 공간은 실내놀이 공간에 비해 비교적 넓고 비구조화된 특징을 가지며, 자연의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Bilton(2010)은 실외놀이 공간을 신체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장소로 간주하며, 실내 공간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실외놀이 예로는 정글짐, 그네, 미끄럼틀, 구름다리, 시소, 유아용 수레차, 자전거 등 기구를 활용하는 것과 대근육 활동과 모래놀이, 목공 놀이, 물놀이 등을 포함한다(교육학 용어 사전, 2018).

실외놀이 공간은 동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동적인 영역에서는 달리기, 뛰기, 비탈 오르내리기, 물놀이와 모래놀이 등 유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적인 영역은 자연 탐구 및 관찰, 작업 활동,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유아가 탐구와 관찰을 통해 학습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동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는 운동놀이 영역과 물·모래놀이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동놀이 영역에서는 영·유아의 대근육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네, 평균대, 뿔뿔, 매트, 복합놀이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크기가 다른 공, 굴렁쇠, 훌라후프, 줄넘기, 제기, 고무줄과 같은 놀잇감을 준비하여 영·유아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과 비어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공

이나 비눗방울을 활용해 마음껏 움직이거나, 줄을 따라 걸어보는 등의 균형 잡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모래놀이 영역은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영·유아가 자유롭게 활동에 몰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놀이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최숙자, 2021). 물·모래놀이 영역은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며,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원활한 곳이 적합하다. 이 영역에는 물놀이 도구와 모래놀이 도구를 충분히 제공하여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래놀이 가까운 곳에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나 놀이 집, 테이블, 극화놀이 소품 등을 마련하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교육부, 2018; 엄정애, 2009; 장영희, 2000; Wellhousen, 2003).

정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자연 탐구 및 관찰 영역은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과 동물을 돌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식물 기르기 공간은 햇볕이 잘 들고 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 영·유아가 식물의 성장 과정과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기르기 공간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며 배수가 원활한 장소에 배치하여 동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작업영역은 실외에서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여 놀이를 주제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젤, 종이, 그림물감, 붓과 같은 기본 도구뿐만 아니라 수수깡, 솔방울, 나뭇가지, 돌맹이, 낙엽 등의 자연 재료와 나무 망치 등의 도구를 제공하여 영·유아가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휴식영역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휴식이 필요한 영·유아들을 위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공간은 영·유아가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휴식영역에 필요한 이동 놀이기구로는 의자나 벤치, 돛자리, 책, 조작 놀잇감 등이다. 그리고 목공놀이 영역은 시끄럽고 지저분해지기 쉬우므로 다른

영역과 떨어져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보건복지부, 교육부, 2018; 엄정애, 2009; 이현경, 2011; 장영희, 2000; Wellhousen, 2003).

블록이나 모래와 같은 개방적인 재료는 실외놀이 활동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영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추상적인 모양의 재료를 실외 환경에 제공해야 한다(Laris, 2005; Pellegrini, 1991). 따라서, 영·유아가 자신의 잠재력, 창의력,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자원과 다양한 재료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규모나 유형에 관계 없이 영·유아가 다양한 실외놀이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2) 어린이집 신체활동에서의 교사 역할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외놀이 실제와 관련하여 교사는 주요한 변인으로 언급된다(김명순, 김지연, 최지예, 윤선영, 2022). 이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정교화하며 교육적으로 이끄는 데 큰 영향(신은수 외, 2011)을 끼치며, 교사 자신의 교수 신념에 따라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McMullen et al., 2006). 따라서 실외놀이는 교사의 인식, 신념,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영·유아가 질 높은 실외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외놀이에서 교사의 개입과 지원은 영·유아의 실외놀이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여 더욱 다양한 실외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영·유아의 실외놀이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실외놀이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김우영, 정혜영, 2020). 그러므로 교사는 영·유아들의 실외놀이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실외놀이를 단순한 대근육 활동이 아닌 실내놀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의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의 조성 및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장주희, 2016). 더불어 영·유아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실외놀이를 계획할 때 놀이와 발달의 관계를 이해하고, 영·유아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며, 각 유아의 발달 가능성과 현재 발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 0~1세를 보육하는 교사는 영아가 오감을 통해 자극에 반응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대·소근육을 활용한 기본 운동과 실내외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만 2세를 보육하는 교사는 다양한 감각 능력을 활용하고 신체 각 부분을 움직이며, 대·소근육 조절과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본운동과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만 3~5세를 보육하는 교사가 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이며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9).

이처럼 영·유아들의 실외놀이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은 실외놀이 관찰하기, 실외놀이에 반응하고 강화해주기, 실외놀이를 확장시키기, 실외놀이 활동 계획하기, 실외놀이 규칙정하기, 실외놀이 즐기도록 도와주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임순, 1994).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은 훌륭한 시설이 아니라, 영·유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교사에게 있다. 보육 환경을 영·유아의 관점에서 구성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육교사가 있는 공간은 최상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역할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즐거움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3) 실외놀이와 신체활동

실외놀이에서 실외란 실내와 대비되는 뜻을 지칭하며, 놀이는 다수가 모여 즐겁게 노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2022). 또한 실외놀이에서 놀이의 의미는 행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실외놀이는 실외놀이터에서 유아들이 흥미에 따라서 조용한 혹은 활동적인 놀이를 하며 대근육 활동의 기회를 얻어 인지적인 경험을 하는 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유아교육사전, 1997). 김인숙, 남미경(2021)은 실외놀이란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한 영·유아들의 놀이 활동이며, 이를 ‘실외놀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다.

실외놀이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조용히 관찰하고 탐색이 가능하며 휴식을 취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정적 활동 영역과 환경적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동적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기정, 2019). 이러한 실외놀이 예로는 정글짐, 그네, 미끄럼틀, 구름다리, 시소, 유아용 수레차, 자전거 등 기구를 활용하는 것과 대근육 활동과 모래놀이, 목공놀이, 물놀이 등을 포함한다(교육학 용어 사전, 2018). 외부에서 놀이가 이루어지는 실외놀이 공간은 실내놀이 공간보다 넓고 비구조화된 특성을 가지며, 자연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실외놀이는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로, 실내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과 자연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놀이이다. 또한, 실외놀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즐거움과 흥미를 동반하는 활동으로, 고정된 놀이기구를 활용한 놀이뿐만 아니라 실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놀이이다.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집 실내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에게 실외놀이는 실내와 다른 활동 경험이 이루어진다. 실외놀이 경험은 실내에서 억압된 부정적

감정의 해소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박진영, 2002), 실외놀이를 통해 영·유아 내면에 배출이 필요한 부정적 감정과 두려움, 염려와 불안 등의 감정을 버릴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이병일, 1999). 또한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놀이는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또래나 교사와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곽희연, 2018). 이런 놀이는 그 자체로 경험이자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어, 놀이를 통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최숙자, 2021). 또한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바탕이 되는 실외놀이는 영·유아기에 매우 좋은 경험을 안겨주는 체험이며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적 공간이자 영·유아의 전인적 교육이 실시되는 과정이다(이기숙, 김정원, 이현숙, 전선옥, 2018). 영유아는 실외놀이를 통해 자연의 변화와 일상을 경험하며, 내적 흥미를 바탕으로 자연을 탐색하고 운동과 실험을 통해 놀이를 자연스럽게 확장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외놀이는 영·유아가 놀이를 즐기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환경적 감수성을 형성하게끔 할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권선영, 정지현, 박선미, 2017).

또한 영·유아의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인 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발달에 적합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매체로, 실외놀이는 영·유아가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험적인 놀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배하영, 성용구, 김근이, 2017). 또한 실외놀이는 영·유아 모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촉진 시켜 주는 복합적인 기능으로써 영·유아가 신체를 활발하게 사용함으로써 운동 능력 발달과 신체 발달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이선애, 김종석, 이채호, 2009). 즉, 실외놀이는 영유아의 신체 건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유아는 주변 환경과 놀잇감의 특성을 탐색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놀이

환경을 점차 이해해 나간다. 실외놀이는 영·유아 주도의 탐구와 실험을 통해 다양한 놀이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어 놀이 활동을 자유롭게 전개 및 확장하여 창의성 발달을 지원한다(강은영, 정미라, 2018). 실외놀이 시 영·유아의 탐색은 한 번의 탐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 대해 꾸준히 탐색하는 행동이 지속되고, 이후 점차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호기심을 갖고 놀이를 시작하고 세상을 알아가며 서서히 성장하게 된다(김선옥, 이현진, 2021).

이처럼 실외놀이는 실외 공간에서 활발한 신체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매우 의미 있는 놀이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실외놀이는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또래나 성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발달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감각을 활용해 자연을 발견하고 학습하는 자연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자유롭게 놀이하며 자연과 소통하는 실외놀이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외와 실내에서의 신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관찰로는 어려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다(Patton, 1990).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연구 절차, 그리고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영·유아들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노력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할 때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의 설립 유형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과 운영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초임 교사는 신체활동과 관련된 어려움뿐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게 되므로(Katz, 1972) 본 연구에서는 담임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여러 유형(국공립어린이집, 법인·단

케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11명의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정원이 50인 이하여서 실외놀이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100m 이내의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담장 내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유아교육기관들이다.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2022년 11월 기준)

연구 참여자	보육 경력	기관 유형	담당 학급 연령	반 정원	어린이집 정원
A 교사	6년	국공립어린이집	만 2세	14명	64
B 교사	13년	국공립어린이집	만 0, 1세 통합	6명	38
C 교사	11년	국공립어린이집	만 2세	14명	65
D 교사	11년	법인·단체어린이 집	만 1세	10명	55
E 교사	9년	직장어린이집	만 5세	9명	55
F 교사	6년	직장어린이집	만 1세	4명	55
G 교사	8년	직장어린이집	만 1세	10명	150
H 교사	7년	직장어린이집	만 4세	10명	87
I 교사	5년	가정어린이집	만 2세	7명	20
J 교사	5년	가정어린이집	만 2세	5명	20
K 교사	10년	민간어린이집	만 5세	20명	65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공간의 모습과 어떻게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어떤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A 교사

A 교사는 경력 6년 차이이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 동료 교사와 함께 만 2세 영아 12명(남아 6명, 여아 6명)을 보육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의 유희실은 0-2 세 모두 이용하고 있고, 폭신한 폼 블록, 미끄럼틀, 자동차, 끌대 등의 대근육 기구와 원마커, 고깔 같은 소도구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그러나 유희실의 크기가 작아 실외 자유 놀이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교실에서 풍선을 천장에 매달거나 색깔 스카프, 종이 블록 길 등을 만들어 걷는 등의 신체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A 교사는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4개와 테니스장에서 영아들과 신체활동을 진행한다. 실외로 이동 시 안전 가방, 비눗방울, 자연물 수집할 비닐은 항상 챙기고 있다.

A 교사는 초임 시절에도 현재와 같은 형태의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 초임 교사 때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영·유아들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경력 교사가 현재는 영·유아들이 부모님과 경험한 횟수가 많아 주도적이고 능숙하게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 2) B 교사

B 교사는 경력 13년 차이이며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 0, 1세 혼합반 9명(남아 7명, 여아 2명)을 보육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긴 복도를 유희실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끌차를 끌거나 자동차 타기, 시소, 미끄럼틀 등의 대

근육 활동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단지 내 놀이터 복합 놀이대는 영아들에게 수준이 높아 편도 5-10분 거리의 근린공원과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실외 자유 놀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B 교사는 영아들의 컨디션이 좋고 기후가 좋은 계절에는 한 주에 3-5 회, 1회 평균 40-60분 이상 실외에서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앞의 화단에 작은 식물들을 키워 영아들이 조리개에 물을 담아 물을 주는 등의 실외놀이도 이루어지고 있다.

### 3) C 교사

C 교사는 경력 11년 차 경력 교사이며 단독 건물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 2세 영아 9명(남아 3명, 여아 6명)을 동료 교사와 함께 보육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의 실내 놀이터는 5평 정도 되며 만 0-1세를 위한 놀잇감을 주로 배치하여 C 교사가 담당하는 영아들에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어린이집 주변의 4개의 놀이터를 영아들의 발달 수준 변화에 따라 이동하며 실외놀이 시간을 운영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진 11월 중순에는 4곳 놀이터 모두를 경험한 영아들이 C 교사와 상의하여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낼 장소를 고르곤 한다. 가을로 변화하며 자연물 놀이터에 영아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아져 C 교사는 채집통, 가위, 색안경, 돋보기 등의 놀잇감을 챙겨 놀이를 지원하고 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운 날, 미세먼지가 높은 날, 영아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때에는 실외에 나갈 수 없어 교실에서 C 교사가 계획하여 실행하는 게임이나 유니바, 풍선 등을 이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에너지 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C 교사는 보육하고 있는 영아들의 흥미나 발달 상황에 맞춰 신체활동 도구나 신체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과 탐색을 하고 있어 본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 4) D 교사

D 교사는 경력 11년 차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만 0, 1세 통합 5명(남아 3명, 여아 2명)을 보육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의 교실 4개가 일렬로 된 구조라서 긴 복도를 유희실로 활용하였다. 유희실에는 정글짐, 미끄럼틀, 트램폴린 등을 설치하여 대근육 활동을 도모하였다. 또한 D 교사는 영아들과 기차놀이, 인형 탈 쓰고 동물 흉내 내기 등 영아들이 즐거워하는 신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언덕에 위치하여 근처 실외놀이터를 갈 때 만 0 세는 부모님이 가져다주신 유모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만 1세는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 근처 놀이터나 구청 앞 공원으로 이동할 때는 신호를 여러 개 건너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많아 D 교사는 이동 때마다 매우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 놀이를 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왕복 30분을 외에 놀이시간은 30분이었으나 영아들 컨디션이 나쁘거나 폭염, 폭우, 미세먼지 높은 날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바깥에서 놀이하려고 한다. 구청 앞마당의 공간에서는 나비가 되어보는 것과 같은 교구를 활용하거나 쓰레기 줍기, 구청의 조경 탐색하기 등의 시간을 통해 영아들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5) E 교사

경력 9년차의 E 교사는 어린이집을 한 번 이동하였으나 회사 밀집도가 높은 도심 속 직장어린이집에서만 근무를 하였다. 면담 전 어린이집은 담장 내에 놀이터 시설이 있었고, 면담 시에는 실외놀이터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여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비교하여 질문에 답변하였다. E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만 5세 유아 10명(남아 5명, 여아 5명)을 보육하고 있다.

E 교사가 현재 근무하는 원에는 실외놀이 시설은 없지만 매우 큰 크기의 유

희실이 어린이집 가운데에 위치하여 달리기, 게임 등의 신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평균대, 유니바 등의 고정식 대근육 기구와 훌라후프, 줄넘기 등의 소도구를 상시 배치하여 유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성하여 신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E 교사는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최대한 실외 자유 놀이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고 하였고, 주변의 서울 시청광장, 덕수궁, 청계천 등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 6) F 교사

F 교사는 6년 차로 현재 E 교사와 함께 도심 속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F 교사는 동료 교사와 함께 만 1세 영아(여아 4명)를 보육하고 있다. 영아들 모두 걸음마는 떴고 입소하였으나 움직임이 많지 않았고, 모여 앉아 역할 놀이하는 것을 즐겨하였다. 그러나 면담이 이루어진 겨울에는 입소 때보다 영아들의 대근육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정확도가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졌다고 보고 하였다. F 교사도 큰 유희실을 이용하여 영아들과 잡기 놀이, 숨고 찾는 놀이 등 함께 하는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평균대에서 점프하거나 유니바 건너기 등의 신체 조절력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영아들의 지속적인 호기심을 유발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F 교사의 교실에서는 천장에 계절별, 흥미별로 좋아하는 놀잇감을 매달아 길게 당겼다가 놓는 놀이와 스텝박스에서 걷고 점프하는 등의 놀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F 교사는 편도 10분 거리의 작은 잔디밭 광장까지 영아들과 걸어서 이동하여 비눗방울, 바람개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놀이하고, 덕수궁처럼 왕복 40분 이상 소요 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유모차를 이용하고 있다.

#### 7) G 교사

G 교사는 8년 차 교사이며 도심 속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G 교사는 현재 만 1세 영아 8명(남아 6명, 여아 2명)을 동료 교사와 함께 보육하고 있다. E, F 교사가 근무하는 곳은 주변의 녹지가 많았으나 G 교사의 어린이집 주변에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G 교사는 어린이집 내부의 영아반 유희실 3개와 복도, 어린이집 건물의 내부를 산책하며 신체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의 영아 유희실 3개, 유아 유희실 2개로 구분되어 있고, G 교사는 영아들과 자동차와 미끄럼틀 탈 수 있는 유희실, 수영장처럼 점프가 가능한 볼풀장 유희실, 상자처럼 부피가 큰 창의 블록으로 구성된 유희실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유희실에는 각 반의 흥미 주제와 관련된 신체활동 도구를 배치하여 교실에서의 놀이가 유희실로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건물에는 다양한 오피스, 큰 식당들이 입점하여 영·유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내부가 매우 크다. 교사와 영아들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어떤 상점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찰하며 이야기 나누는 경우가 많다. G 교사의 어린이집은 개원 5개월 차로 내년 봄에는 유모차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산책을 가는 등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 8) H 교사

H 교사는 경력 7년 차의 교사로 만 4세 유아 10명(남아 7명, 여아 3명)을 동료 교사와 함께 보육하고 있다. H 교사와 함께하는 유아들은 남아가 많아 발달 수준이 크게 나뉘어 있어 신체활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다. H 교사는 회사 건물 내부의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며 편도

20분 거리에 큰 공원이 인접해 있으나 왕복 10차로 이상의 횡단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이유로 인하여 매일 이용할 수 없고 부모, 교사들이 협의하여 반마다 정해진 요일에만 실외에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다. H 교사는 동료 교사와 수시로 흥미로운 놀이와 놀잇감에 대해 협의하여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실외놀이를 갈 때 축구공, 원반, 밧줄과 같은 이동이 편리한 작고 가벼운 놀잇감을 항상 챙기고 있다. 하지만 기후가 좋지 않고, 아픈 유아들이 많을 경우 실내 유희실이나 교실에서 대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에는 영아·유아 유희실 2곳이 나뉘어 있고, 유아 유희실은 만 3-5 세 모두 이용하기 위해 각 반에서 오전·오후 각각 40분씩 사용할 수 있다. 유희실 한편에는 개방된 신체활동 도구 정리 공간이 있어 유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선택하면 교사가 바로 꺼내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실의 크기도 넓어 스마트TV를 설치하여 체조와 스트레칭, 신체를 이용한 게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9) I 교사

I 교사는 경력 5년 차이며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 1세 영아 4명(남아 1명, 여아 3명)을 보육하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138.84㎡(약 42평)의 크기로 20명의 영아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

I 교사 어린이집은 실내에서는 모든 교실의 문을 열고 생활하여 영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님이 권유로 매일 오전 10시쯤에는 거실에 모여 체조가 이루어졌다. I 교사는 대근육 발달을 도모하는 빌리보, 큰 벽돌 블럭 등 신체활동 도구가 어린이집에 많이 구비 되어 있었지만 상시 배치할 공간이 없어 사용 후 바로 정리하는 것에 많은 불편함이 느낀다고 하였다. 좁은 유희실 공간으로 인해 영아들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매일 실외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평균적으로

30-40분 이상 실외에서 몸을 움직이며 놀이하였다.

I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가 4곳이 있고, 만 1세 영아들은 수준이 낮은 쉬운 놀이터를 이용하였다. 더불어 잔디가 있는 게이트 볼장, 단지 내 작은 동산, 텃밭 등을 이용하여 실외 활동을 운영하였다. 또한 페트병에 구슬을 넣어 교사가 제작한 끝자, 바람개비 등 소도구를 항상 챙겨서 실외 활동 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 오전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놀이하기도 한다. 영아들에게 안전한 거리를 안내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바닥에 분필로 그리기 등의 놀이를 주로 하고 있다.

#### 10) J 교사

J 교사는 5년 차 교사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다. 남아 1명, 여아 5명 총 6명의 만 2세 영아를 보육하고 있다.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에 있으며 105.78㎡(약 32평)의 크기이고, 교실(방) 3개로 구성 되어있다. 거실이라 불리 우는 곳이 유희실이며 트램폴린, 정글짐, 빅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희실에서는 점프나 공을 이용한 놀이가 많이 이루어진다. J 교사는 만 2세 영아들이 충분하게 움직이며 놀이하기에는 유희실의 크기가 작고, 신체활동을 위한 도구가 적어 바깥 놀이를 매일 나가려고 한다.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와 옆 아파트 놀이터까지 3곳을 이용하고 있다. 놀이터 복합 놀이대를 이용하거나 술래잡기와 같은 게임, 산책 등 평균적으로 40분 전후로 실외에서 놀이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요청 시 다른 반의 인력인 보조 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일 지속된 지원이 아니기에 J 교사는 대부분 혼자서 영아 6명과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11) K 교사

K 교사는 10년의 경력 교사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에서 8년 이상 장기 근속하였다. 면담이 이루어진 때에는 만 3세 유아 14명(남아 7명, 여아 7명)을 보육하고 있었다.

K 교사의 어린이집 실내 유희실은 영·유아들이 달리기, 자동차 타기와 같이 이동 반경이 큰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넓은 크기이다. K교사는 유아들과 평균대에서 멀리 점프하기, 후프 바닥에 놓고 빠르게 건너기, 빌리보 길 걸어보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내 놀이터 2곳과 주변 공공 놀이터, 산책길을 이용해서 유아들과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지 내 테니스장이 있으나 바닥이 미끄럽고 딱딱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K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신체활동에 관심이 많아 실제 영·유아들과 놀이한 신체활동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평가회를 운영하였다. K 교사의 어린이집이 속한 자치구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분기별로 어린이집 대표 교사들을 모아 신체활동에 대한 집합 교육이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자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교육과 피드백으로 인해 K 교사는 신체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과 수준을 인지하고 있었다.

## 2. 연구 절차

### 1) 예비 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면담 질문의 적절성 및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22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예비 연구를 실행하였다. 예비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는 주임 교사와 초임 교

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연구를 실행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예비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설명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작성된 면담 질문 목록을 토대로 어린이집에 실외놀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실외 자유 놀이시간의 교사들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에서 면담 소요 시간은 60~70분 동안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은 1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같은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만 경험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교사 경력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 시에 경력 교사로 선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자가 예비 연구 시 준비한 질문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질문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에서 무슨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나요? A 공간에서 놀이할 때 놀이를 풍부하게 했던 것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열린 질문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연구자가 참여자의 어린이집에 모두 방문하여 실내·외 환경과 놀이 상황을 관찰할 수 없기에 참여자 근무하는 실내·외 신체활동 공간 사진을 수집하면 참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이후, 유아교육 전문가 1인으로부터 질문의 적절성을 검토받아 질문 목록을 완성하였다. 이상의 예비 연구 결과를 본 연구의 면담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 2) 본 연구

### (1) 심층 면담

연구 참여자들과는 직접 대면하여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선호하는 장소로 찾아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ZOOM

(화상 회의 서비스)을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1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총 2회씩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1회당 약 40~60분이 소요되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면담 문항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1차 면담은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신체활동 공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분석하여 2차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전체 과정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기간은 겨울이라 참여자들 대부분 주 1회 실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영·유아들의 컨디션에 따라 3주 이상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어린이집 내부 유희실과 보육실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면담 기간에는 실내 신체활동에 관한 내용을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었지만 실외에서 이루어진 신체활동은 봄, 여름, 가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회상하여 답변하였다.

더불어 면담 기간(2022년 겨울)은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크게 유행하는 시기였다. 참여자들은 추운 겨울이라 영·유아들과 바깥을 나갈 수 없었으며,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실내에서 영·유아들과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달리기나 잡기 놀이와 같은 숨이 차고 호흡을 크게 뱉어내는 활동은 지양하는 기관도 있었다.

면담 후 연구 결과를 작성하던 중 2023년 4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 대응 비상사태의 상황 종식을 선언하였다. 봄, 여름의 실외 신체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서 놀이하는 영·유아들의 놀이 상황이 궁금하여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 면담을 추가 진행하였다. 1, 2차 면담 때와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6명이 교사들과 대면, 전화, 메일을 통하여 추

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루어졌고, 총 28번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의 주요 질문

영역	면담 문항
실내·외 신체활동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신체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공간, 내용, 시간 등)</li> <li>- 영·유아들과 신체활동을 했을 때 몰입한 경험은 어떠한가?</li> </ul>
실내·외 신체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와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li> <li>-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실내·외 신체활동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li> <li>- COVID-19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실외 활동 빈도, 실내 신체활동의 다양성 등)</li> </ul>
실내·외 신체활동 운영을 위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활동을 위한 실내·외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li> <li>- 신체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환경, 교사 교육, 놀이자료 등)</li> <li>- 신체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교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가?</li> </ul>

## (2) 사진 자료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안내할 때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희실, 실외놀이 공간, 신체활동에 많이 사용하는 도구, (얼굴을 가린) 영·유아들의 실내·외 신체활동 사진을 첨부하도록 요청하였다. 연구자가 첨부한 사진을 예시로 연구 참여자들도 연구자에게 면담 전에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놀이 사진을 전송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전 참여자들의 근무 공간과 신체활동 놀잇감, 놀이 장면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더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면담 때 참여자들이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연구자와 참여자가 확장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대화 내용의 이해력을 높이는 효과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마다 적게는 20장에서 많게는 50장까지 영·유아들과 함께 신체활동을 운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대략 250장의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 (3) 현장 노트와 연구자 저널

연구자는 개별 면담 진행 과정에서 면담 내용, 참여자의 감정 상태, 면담 분위기,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나 문장, 추가로 필요한 질문 등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자는 참여자가 중점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로 기록하였으며 이를 자료 분석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개별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자는 연구자 저널에 면담 상황과 자신의 생각 및 느낌을 기록하였다. 또한, 다음 면담에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자료 분석 과정에도 활용하였다.

### (4) 연구 참여자 저널

유아 교사의 반성적 사고와 실천적 지식 형성을 통한 전문성 신장 방법에는 저널 쓰기(journal writing), 다양한 이야기 쓰기(narrative writing), 학급 연구, 동료 장학, 포트폴리오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 저널 쓰기이다(박은혜, 1996; 이슬, 2019).

1차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저널 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요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영아반 담임교사 1명과 유아반 담임교사 1명이 작성한 저널

을 제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저널은 면담을 시작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실내·외 신체활동에 대한 실천과 반성적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3.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문제의 해답을 연구 자료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이다. 수집한 자료를 조직화하여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자료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는 작업이다(Bogdan & Biklen, 2007).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참여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자료, 심층 면담 녹음 전사 자료, 면담 노트, 그리고 연구자 및 참여자 저널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Hatch(2008)가 제시한 자료 분석 방법 활용하였으며, 개별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전사하였다. 또한, 교사의 경험에 기반한 상황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된 핵심 문장을 표시하며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핵심 문장에서 중심 생각을 도출하고 이를 메모하며 주제에 따른 범주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범주화된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탐색하고 관련된 인용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교사들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구성원 검토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분석된 자료

자료 목록	자료 수집 기간	수집된 자료
면담 전사 자료	2022. 11-2023. 11	• 총 28번, 녹취 전사 기록(A4 274장)
문서자료	2022. 3-2022. 11	• 주간 보육 실행일지
사진 자료	2022. 3 - 2022. 11	• 보육실, 유희실, 실외 활동 환경 사진 • 실내·외 신체활동 사진
면담 노트 연구자·참여자 저널	2022. 11 - 2023. 2	• 면담 노트 • 연구자 저널 • 참여자 저널

본 연구의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실외 자유 놀이시간의 신체활동에 관련된 용어들을 ‘바깥 놀이’, ‘산책’ 등 교사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 ‘강당’,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 등에서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교사들이 사용한 용어를 ‘실외 신체활동’, ‘유희실’으로 일관성 있게 서술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반복해서 언급한 내용에는 핵심 문장으로 표시하고, 중심된 생각을 메모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에 따라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의 신체활동의 실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때 어려움’, ‘실내에 신체활동을 위한 요구’로 구분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 수정 과정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재조직하며 중복된 내용을 연결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여 하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4> 범주화 수정 과정

1차 하위범주	2차 하위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보육실, 유희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li> <li>• 실외(대체 놀이터, 공원, 광장, 궁궐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li> <li>• 실내·외 공간에 관한 설명과 영·유아들이 흥미로워하는 신체활동 놀잇감과 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영·유아들의 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신체활동</li> <li>• 교사가 염두하고 있는 신체 발달과 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위한 준비와 주의사항</li> <li>•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위한 준비와 주의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내·외부에서의 신체활동을 위한 교사들의 준비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신체활동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li> <li>• 실외 공간과 날씨에 제약이 있을 때 영·유아들의 흥미를 위한 노력</li> <li>•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적용하는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신체활동을 제공하려는 교사들의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놀이를 위한 노력</li> <li>• 실외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대처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활동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와 대처 방안</li> </ul>

1차 하위범주를 통해 2차 하위범주로 재조직하며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있는지 의미가 드러나도록 범주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실내·외 놀이 시설에서 양질의 신체활동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관하여 범주화하였다. 교사들의 노력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범주를 추가하여 연구문제에 따른 범주 분석의 최종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문제에 따른 최종 범주

연구문제	상위 범주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의 신체활동에 관한 경험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때 어려움	협소한 물리적 공간 놀잇감(도구) 보관과 이동의 어려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외부 환경
실내·외 신체활동을 위한 요구	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실외 신체활동 신체활동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와 놀잇감(도구) 실제에 적합한 교사 교육

#### 4. 자료의 신뢰성 확보 방안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천(2017)이 제시한 삼각 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의 조언과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확인 및 평가 과정을 거쳤다.

### 1) 삼각 측정법

실내·외 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경험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가 보육하는 반의 주간 보육 실행일지, 보육실·유희실·실외 활동 환경 사진, 신체활동 사진, 면담 전사 자료, 연구자와 참여자의 저널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삼각 측정법을 활용하였다.

### 2) 동료 연구자의 조언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한 3인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결과에 대한 조언과 확인을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도출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와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동료 연구자의 조언에 따라 실내·외 신체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을 각 상위 범주에 맞게 결과에 포함하고, 하위 범주의 내용을 수정하여 자료 분석의 왜곡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3)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 결과의 확인 및 평가

연구에 참여한 교사 2인에게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와 도출된 결과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하여, 실외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에 대한 경험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또한, 도출된 결과가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의견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실외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원내의 유희실이나 인근 놀이터, 공원, 광장, 하천 산책로에서 산책하기, 자연물 탐색하기, 소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같은 놀이를 하며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거지역, 도심 등 어린이집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주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달랐으며 그에 관련하여 영·유아들의 놀이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 1)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외 자유 놀이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무슨 놀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교사들은 신체활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질 공간을 탐색하고 영·유아들과 의논하여 놀이공간을 선택하였다. 교사들과 영·유아들은 협의를 통해 선택한 공간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진행하였고 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 (1) 어린이집 주변의 공원, 녹지 광장,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면담 결과 주거지역이 아닌 회사가 밀집한 도심 업무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근에 설치된 대체 놀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을 설치하여 유희실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녹지 광장, 공원, 궁궐, 빌딩 내 유희 공간 등을 찾아가 신체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COVID-19가 종식된 후 만 5세 유아들과 봄·여름 동안 바깥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달리기가 하고 싶으면 시청광장, 곤충 관찰을 하고 싶으면 덕수궁, 새도 보고 물소리도 들으면서 산책이 하고 싶으면 청계천, 멀리 가고 싶은 날엔 광화문, 단풍이 보고 싶으면 정동길에서 아이들과 바깥 놀이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각 반마다 연령에 따라 제한은 있지만 놀이 목적에 맞게 아이들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E 교사 3차 면담, 2023. 09. 03)

E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서울 도심의 회사 빌딩이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E 교사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하고 유아들과 상의하여 실외놀이 시간에 놀이하고 싶은 공간을 선택하였다. 다음 사례의 F 교사, H 교사도 도심 속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만 주변의 큰 공원과 궁궐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공원과 궁궐을 이용하여 자연물을 관찰하고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이랑 함께 15~25분 정도 걸어서 시청광장과 덕수궁에서 주로 실외 활동을 진행해요. COVID-19 이전에는 시청광장에서 달리기, 비눗방울 놀이, 텀 게임 등을 했었는데 선별진료소 설치로 몇 년 동안 이용을 못 했어요. 그 기간에는 덕수궁 안쪽 쉼터에서 자연물 탐색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나무가 우거져 오래 걸어간 아이들에게 시원한 쉼터이자 여러 가지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F 교사 1차 면담, 2022. 11. 09)

저희 원 주변에는 여의도 공원이 있어요. 이동할 때는 10차로 이상의 건널목을 건너야 하지만 공원 내에서는 유아들 마음대로 땀 수 있어요. 만 5세 유아들이어서 팀 게임을 좋아해요. 이어달리기, 원반 날리기, 농구공으로 주고받기, 장애물 게임 등에 흥미를 많이 보여서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F 교사, H 교사는 영·유아들과 이동 거리가 길고, 위험한 건널목을 건너지만 이동한 공간에서 자연물 탐색이나 신체활동 놀잇감(소도구)를 활용하여 놀이 시간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다음 사례의 G 교사는 앞선 E 교사, F 교사, H 교사와 같은 유형의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으나 영·유아들과 함께 실외에서 뛰어놀 공간이 없는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G 교사는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을 시도하고, 어린이집 외부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큰 빌딩을 활용하여 영아들과 실내에서 걷거나 산책하면서 신체활동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회사들이 모여있는 오피스 타워에서 근무 중이에요. 그 빌딩들이 연결되는 층이 있고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그곳을 아이들과 산책해요. 창문 통해서 바깥 구경을 하거나 빌딩들 사이의 벤치가 몇 개 있는 휴식 공간에 다녀오기도 해요. 빌딩 주변에 광장이나 공원이 없어요. 작은 하천은 성인 걸음으로 편도 15분 이상이고 가는 길의 유동 인구나 신호등이 많아서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실외에서 활동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실내 보육실과 영아 유희실 2개를 번갈아 이용하며 일과를 보내고 있어요.

(G 교사 1차 면담, 2022. 10. 23)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도심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를 실내 유희실로 대체하거나 주변의 활용 가능한 공간인 녹지 광장, 공

원, 궁궐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위의 기관들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재원 영·유아들은 실외에서 놀이하기 위해 왕복 1~3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은 모두 다르지만 실외놀이 공간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실외 자유 놀이를 위한 이동 거리가 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유아반 교사일 때는 아이들과 정말 춥거나 덥지 않으면 봄, 가을에는 매일 실외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런데 영아반 담임을 맡으면서 이동 거리에서 정말 많은 딜레마가 생겼어요. 저희는 놀이하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서 만 1세는 무조건 4인용 유모차에 태우고, 만 2세도 가을 단풍이 떨어질 때쯤에 덕수궁까지 걸어가는 도전을 해요. 다녀오면 교사들도 아이들도 지치고, 식사 시간부터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영아들이 많거나 아이들을 같이 인솔할 동료 교사가 휴가를 가면 실외 활동을 못 나가요.

(F 교사 1차 면담, 2022. 11. 09)

1차 면담 이후에 바깥 놀이를 1번 나갔어요. 주 2회 나가는 것으로 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정했는데 감기가 심한 친구가 있으면 개별 보육을 할 수 없어서 유희실에서 놀이했어요. 날씨랑 대기, 아이들 컨디션을 고려하면 1년에 바깥 놀이에 나갈 수 있는 횟수가 정말 적어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두 영·유아들의 컨디션과 안전상의 이유로 실외 신체활동은 주 1~3회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실외놀이 시설이 어린이집 담장 안에 없는 경우 안전한 놀이공간까지 이동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겨울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영·유아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에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큰 요인이 된다.

## (2) 어린이집 주변의 놀이터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어린이집 담장 안에 실외놀이터가 없지만 주거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인근 놀이터까지 편도 5~10분 정도 이동하여 실외놀이가 이루어졌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영·유아들은 미끄럼틀, 계단 등으로 구성된 조합 놀이대가 설치된 ‘놀이터’가 있어 놀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았다. C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주변에는 놀이터의 많아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놀이로 영아들과 놀이터 이름을 붙이고, 매일 영아들과 상의하여 놀이터를 선택하여 실외놀이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저희는 아파트 놀이터, 공공 놀이터까지 총 4개를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 편도 5~10분 정도 걸려요. 놀이터 색깔이나 조합 놀이대를 이용해 하는 놀이로 이름을 붙여서 영아들과 구분하고 있어요. (중략) 자연물 놀이터는 사다리 타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기, 나뭇가지 줍고 땅 파기, 숟바꼭질하기, 나뭇잎 쌓기 등 다양한 놀이가 이루어져요.

(C 교사 1차 면담, 2022. 11. 15)

C 교사와 달리 B 교사가 보육하는 만 0, 1세 영아들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 영아용 놀이터도 위험한 수준이어서 교사들과 영아들은 놀이터가 아닌 다른 공간을 찾기도 하였다. 혹은 조금 더 이동하여 만 0, 1세 수준에 적절한 놀이 기구가 있는 놀이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지 내 놀이터의 수준이 저희 반 영아(만 0세)들에게는 높아 주변 근린공원과 시립 도서관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른 어린이집과 겹치는 경우가 없고, 터널 미끄럼틀도 짧고 낮아요. 그네도 그물 모양의 둥근 모양이라 아파트보다 덜 위험해요. 여름에는 바닥 분수대가 있어 물놀이도 하고, 가을에는 도토리나무가 많아 도토리를 줍기도 해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저희 어린이집은 언덕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올라가면 공공 놀이터, 내려가면 구청 앞 공간에서 바깥 활동을 진행했어요. 영아들과 손을 잡고 걸으면 두 곳 모두 편도 15분씩 소요돼요. 구청 앞 공간은 딱딱한 돌 바닥이고 구청 조경에서 꽃구경하는 정도여서 놀이터를 더 많이 이용해요.

(D 교사 1차 면담, 2023. 01. 10)

교사들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들과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영·유아들이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내는 오전 10~12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커뮤니티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 교사들과 영·유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파트 산책로가 좁지 않고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10분 정도 걷고 이후에는 테니스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이하고 있어요. 특히 오전 바깥 놀이 시간에는 주민들이 없어서 테니스장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잡기 놀이, 비눗방울 놀이 등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요. 테니스장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놀이터처럼 부딪힐 복합 놀이대가 있는 게 아니라서 교사로서 안전에 대해 심적으로 여유로워요.

(A 교사 1차 면담, 2022. 11. 14)

만 1, 2세 영아들은 잔디로 이루어진 게이트볼장에서도 놀이가 이루어져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잔디밭이라서 아이들과 달리기를 많이 하고 들고 가기에 너무 무겁지 않은 끌차, 바람개비 같은 소도구를 많이 이용했어요.

(I 교사 1차 면담, 2022. 11. 12)

A 교사, I 교사는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 등의 운동 공간이나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담장을 아파트 담장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넓은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2)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교사들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실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교실과 유희실(강당), 복도 등의 공간을 신체활동 장소로 활용하였고, 공간마다 다른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을 활용하여 신체 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1) 유희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본 연구에서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에는 큰 유희실 1개 또는 작은 유희실을 여러 개 설치하여 운영 중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어린이집 설립 기준 완화 정책에서 비롯하여 옥외놀이터 설치가 원칙이던 것을 옥외·실내·인근 놀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거지역이 아니므로 인근 놀이터가 없어 대체할 수 없고, 대부분 설립 주체인 회사 건물의 넓은 공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유희실을 공간을 확보한 후 놀이터 설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내 유희실에서 실외 활동을 대체하여 놀이할 때에는 잔디 광장이나 실외놀이터의 복합 놀이대를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신체활동 놀잇감(기구)를 많이 활용하였다. 면담을 통해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 운영 상황별로 설치한 유희실의 크기와 개수가 달랐지만, 아래의 사례에서처럼 유희실에서 신체활동 놀잇감(기구)을 활용하여 놀이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희 원은 실외놀이터가 없고 실내 유희실이 커요. 직장어린이집이어서 빌딩의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데 가운데 공간이 모두 유희실이에요.

유희실에 기둥이 없고 동적·정적 영역을 짜임새 있게 나누었어요. 정적인 곳에는 도서관, 놀이집, 역할 놀잇감을 배치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적인 곳에는 상시로 평균대, 원목 미끄럼틀, 흔들말, 다양한 촉감의 공, 폼 블록, 유니바, 빅 베트민턴, 파라슈트 등 다양한 놀잇감(기구)들을 설치해 놓아요. 영아들은 같은 활동을 매일 반복하며 수준을 높여가고, 유아들은 기구들을 여러 개 조합해서 또래들과 시합하거나 도전하는 놀이를 즐겨하고 있어요.

(F 교사 1차 면담, 2022. 11. 09)

유희실이 두 개가 있어요. 유희실 1은 현관 앞 영아반이 30분씩 사용하고, 유희실 2는 복합 놀이대와 도서관이 있어 유아반이 40분씩 요일을 정해서 이용해요. 한 발 뛰기, 농구 골대 이용, 체육 선생님이 빌려주신 놀잇감으로 장애물 달리기, 뽕틀 등의 놀이를 해요. 울타리처럼 오픈된 정리함에는 큰 고깔, 징검다리, 여러 가지 공, 대형 컵, 골대 등을 보관해서 유아들이 원하는 놀잇감을 바로 꺼낼 수 있어요. 막혀있는 정리함에는 과녁, 터널, 대형 컵 등 작은 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유희실은 체육 특별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커요. 원목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고, 네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영·유아들이 빠르게 달리며 놀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평균대, 후프 바닥에 두고 건너거나 세워서 터널처럼 기어가기, 매트 구르기, 폼 블록 높이 쌓고 점프하기 등 도구를 이용한 놀이를 많이 해요. 이후에는 주변에서 팽이 돌리는 친구, 거미줄 놀이하는 친구 등에 관심을 보이고 전환되어 자연스럽게 놀이에 변화가 생겨요.

(K 교사 1차 면담, 2023. 01. 09)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11명 중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 4명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1명이 근무하는 기관에만 유희실이라는 공간이 존재하였다. 나머지 6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인근의 놀이터를 대체하는 경우로 유희실(실내 놀이터)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에 실외 공간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내의 복도나 거실을 이용하여 실내 신체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복도나 거실에서도 여러 가지 터널, 유니바,

자동차 타기 등의 놀잇감(기구)으로 신체활동이 이루어졌다.

유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도가 넓고 교실 문 열어두고 사용하면 공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영아들의 주의 전환 시간이 빠르기에 자동차 타기, 유니바 넘기, 미끄럼틀 타기, 터널 놀이, 비눗방울 등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놀잇감을 이용해서 놀이해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총 4개의 교실이 일렬로 있고, 조리실 앞에 긴 복도가 있어요. 영아들과 고깔 탑 쌓기, 고깔 반환점 돌아오기, 블록 징검다리 건너기, 모래주머니 던져보기, 동물 모자 착용하고 흉내 내기, 터널 통과하기, 기차놀이 등을 재미있게 했어요. 그런데 복도라서 길이는 길지만 폭이 좁아요. 복도에 있는 교구장을 옮겨도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최대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D 교사 2차 면담, 2023. 01. 25)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거실이 유희실이에요. 그마저도 코로나19 상황에 트램폴린, 정글짐을 설치했어요. 아이들은 마음껏 뛸 수 있어 좋아하지만 1시간 내내 뛸 수는 없으니, 다른 놀잇감을 함께 배치하고 싶은데 공간이 작아서 다른 놀잇감을 함께 배치할 수가 없어요. 배치하기도 어렵고 보관도 어려워서 특히 신체활동 관련된 놀잇감(기구)은 잘 구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좁거나 덥지 않으면 아이들을 무조건 밖으로 데리고 나가보려고 해요. 거실에 있는 것보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많아서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J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B 교사, D 교사, J 교사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들은 유희실이 아닌 어린이집의 복도, 거실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불편함이 많다고 하였다. 밀집도가 높은 좁은 공간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할 때 영·유아들의 안전을 첫 번째로 우려하게 되며, 그 공간에서 놀이의 즐거움을 발견하여도 놀이의 지속시간이 짧고 다른 놀이로 확장·연계까지는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희실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

는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최대한 바깥 놀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 (2) 보육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유희실(실내 놀이터)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육실에서도 실내 신체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보육실의 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교구장을 벽으로 붙인 후 영·유아들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진행하였다.

COVID-19 발생하고 유희실에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체조를 하다가 팬 찰은 방법이어서 모든 교실에 스마트TV를 설치했어요. 유튜브에서 유아 체조를 검색하여 활용했어요. 한 영상마다 체조가 2번 반복하여 3~4가지 영상을 이어서 따라 해요. 화면이 크고 세로로 돌릴 수도 있어서 카메라를 켜고 유아 자신의 동작을 찍거나 거울처럼 보면서 움직일 수 있어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H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큰 유희실이 2개 있지만 이용하는 학습의 수가 많아 요일과 시간을 정해 번갈아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과 유희실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겹치는 경우 보육실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H 교사는 보육실의 교구장과 책상을 옆으로 옮겨 신체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팀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TV를 활용한 체조를 많이 진행하였다. H 교사는 미디어를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유아들이 TV 화면 속 체조를 따라 하며 몸의 움직임과 조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색다른 신체활동 놀잇감(기구)이라고 소개하였다. 유희실이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H 교사의 사례와 달리 다음 C

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영아들이 실내에서 놀이할 공간은 보육실뿐이어서 보육실에서 신체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저희 어린이집에는 유희실이 5평 정도로 작은 공간이 있는데 작은 미끄럼틀을 놓고 0~1세 영아들이 주로 이용해요. 그렇기에 실외에 못 나갈 때는 교실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해요. 놀이터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보다는 교실 환경에 맞게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교실이 직사각형이어서 유니바 같은 놀잇감을 일렬로 나열하고 두 발 뛰기와 같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바닥에 그림 붙여서 뛰어보기, 벽돌블록으로 계단 만들기, 스카프 연결해서 당기기 등 놀잇감을 활용해서 놀이를 주로 하고 있어요.

(C 교사 2차 면담, 2022. 12. 19)

C 교사는 직사각형 모양의 교실에서 영아들의 발달 정도와 흥미에 맞는 놀잇감(기구)을 활용하여 실외놀이를 대체하였다. 특히 벽으로 붙여 놓은 교구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균형 잡기, 뛰어넘기, 기어가기, 구부리기 등의 비·이동 동작의 기술을 이용한 놀이를 많이 진행하였다. C 교사, H 교사처럼 유희실이 아닌 보육실에서는 공간의 크기와 안전상의 이유로 유니바, 파라슈트 같은 소도구를 이용하거나 규칙이 있는 팀 게임을 주로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구장이나 벽에 부딪히는 큰 동작 보다는 작게 움직여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때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내·외 물리적

인 공간, 놀잇감(도구) 보관과 이동 방법의 어려움,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협소한 물리적 공간

정원 50인 이하의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유형의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놀이터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2024, 보건복지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유희실’이라 부르는 실내 놀이터 공간을 구성하고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제공한 사진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공간의 크기와 구성한 신체활동 도구의 수준 격차가 많이 발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희 원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유희실이 4개예요. 연령별로,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사용해요. 영아들이 “오늘은 볼풀공방에 가고 싶어요. 자동차 놀이방에 가고 싶어요.”라며 흥미를 보이고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G 교사 1차 면담, 2022. 10. 23)

저희 원 유희실은 매우 작아서 교실에서 교구장을 모두 벽에 붙이고 신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트에 걸려 넘어지거나 교실 바닥의 낮은 턱 같은 위험 요소가 있어서 바깥 활동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C 교사 2차 면담, 2022. 12. 19)

저희 원은 거실이 유희실인데 그마저도 교실로 이용해요. 그래서 폴딩도어로 거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교실, 반대쪽은 유희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빌리보, 징검다리 등으로 유희실을 채우려고 했고, 공간이 너무 작아 아이들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사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할 때가 아니면 꼭 나갔고, 춥고 비

오는 날도 실내는 답답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놀이를 했어요. 사전에 부모님들 동의를 받아서 차가 없는 공간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놀이를 했어요.

(I 교사 1차 면담, 2022. 11. 12)

유희실의 개수가 많고 구성된 환경이 모두 달라 선택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G 교사와는 다르게 C 교사, I 교사처럼 유희실의 크기가 협소하여 영·유아들이 원하는 만큼 신체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사들은 유희실의 작은 크기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큰 동작을 제한을 하게 되고, 다양한 놀잇감(기구)을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였다. 이로 인해 날씨가 좋은 날은 꼭 실외로 이동하여 산책이나 신체활동을 통해 실외놀이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희실 공간이 있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H 교사처럼 교실에서 에너지 발산을 위한 신체활동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H 교사는 교실에서 정적·동적인 활동 이후 식사와 같은 일과가 바로 이어지기에 불편함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실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날에 교실 한쪽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 먼지가 음식에 들어가는데 위생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 놀이 시간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신체활동을 하고, 정적인 놀이를 하고 식사를 해요. 회사 빌딩에 있어서 창문을 열 수 없기에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요.

(H 교사 2차 면담, 2022. 12. 06)

보육실의 크기가 작다고 느낀 J 교사는 교실 문을 개방하여 유희실(거실)까지 놀이공간을 확장하였다. J 교사는 같은 신체활동을 운영하였는데 교실에서 활동할 때보다 영아들의 놀이의 시간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 놀이공간이 놀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꼈다고 언급하였다.

아이들 놀이 지속시간이 짧아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최근에 벽돌 블록으로 스के이트를 만들어 타는 놀이를 하며 만 0, 1세가 유희실에 없어서 교실 문을 열고 공간을 확장해주었더니 교실에서만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하고 여러 상황으로 전개되며 놀이가 풍부해지는 것을 관찰했어요. 또 이불 쓸매를 태워줄 때 교실에서는 몇 발자국 옮기면 끝이기에 공간이 협소해서 지속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했어요.

(J 교사 2차 면담, 2023. 01. 15)

F 교사 또한 공간의 크기가 놀이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실에서 유희실로 공간을 확장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전에는 영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은 크기의 보자기를 제공하였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넓고 큰 보자기를 제공하였다. 교실에는 장애물이 많아 활발한 신체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희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변화를 주어 놀이를 지원하였다. (중략) 다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기에 오전 자유 놀이를 마무리하며 놀잇감들을 정리한 이후 유희실의 넓은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F 교사의 저널)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희실을 이용할 수 없어 교실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상황, 보육실의 크기가 작아 신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등 신체활동을 운영하면서 겪은 어려움이 다양하였다. 교사들은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져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하는 횟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사들은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운영할 때 좁은 공간으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지원할 수 없어 아쉽다고 표현하였다.

## 2) 놀잇감(도구) 보관과 이동의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린이집을 벗어난 개방된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도록 신체 놀잇감(도구)을 준비하였다. 교사들은 실외에서 안전사고와 실종을 예방을 위해 영·유아들의 손을 잡고 이동하기에 양손이 자유로운 배낭에 넣기 용이로운 작고, 가벼운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을 주로 선택했다. 작은 원반, 줄넘기, 비눗방울 기계, 작은 공, 작은 고깔, 돋보기 등과 같은 놀잇감이다. 교사들은 준비한 놀잇감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하여 놀이를 지원하였지만 영·유아들이 유희실에서 활용하였던 신체활동 놀잇감을 회상하고 요청할 때 무게와 크기로 인해 실외로 가져오지 못하여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하였다.

주변의 놀이터, 공원, 하천 등 장소는 계획하고 가지만 그 공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신체 놀이 도구를 준비하는 편이에요. 원반, 에어 로켓, eva 부메랑이 가볍고 작아서 교사 배낭에 넣기 좋아요. 또 비눗방울이나 긴 줄넘기, 작은 공, 작은 고깔 여러 개를 가져가곤 해요. 왕복 10차로를 건너며 아이들 손 잡고 인솔하는 것이 먼저라서 매번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보조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많은 것을 담임들이 유아들 인솔과 함께 하기에 어려워요. (중략) 줄을 하나 가지고도 나무에 묶어 뛰어 넘기, 림보, 나무에 묶어두기 등 이루어지는 놀이가 많아요. 교사가 챙겨가는 놀잇감은 한정적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아들은 놀이를 찾아내요. 놀이를 찾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유아들인데 그 즐거움이 연속되도록 더 지원해 주지 못해 아쉽게 느껴져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우리 어린이집 놀이터가 있으면 상시로 배치할 수 있는 도구나 탈 것 등이 있었을 텐데... 아이들 인솔해야 하기에 실내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유니바나 낮은 평균대 같은 놀잇감을 갖고 나가서 놀지는 못해요. (중

략) 요즘 눈이 자주 오잖아요. 우리 놀이터가 있으면 눈놀이 놀잇감들을 미리 준비해두고 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기에 쉽지 않아요.

(J 교사 2차 면담, 2023. 01. 15)

교사들은 광장이나 공원에서 자연물 탐색 외에 여러 가지 게임이나 놀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체 놀잇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 교사, J 교사는 보조 인력의 지원이 있다면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놀잇감을 옮겨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놀이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교사가 실외로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을 가지고 갈 의향이 있어도 다음의 사례와 같이 보관 방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활동 놀잇감(도구) 구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고 하였다.

저희 원장님은 신체활동에 관심이 높아서 많이 사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관할 곳이 베란다뿐이라서 매우 협소해요. 원장님 집에 보관하다가 주기적으로 놀잇감(기구)을 교체해요.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서 옮겼는데 갑자기 찾으면 꺼내줄 수 없어서 많이 곤란해요.

(I 교사 1차 면담, 2022. 11. 12)

신체활동에 필요한 도구들은 크기가 커서 보관할 공간이 없고, 어린이 집은 구매하고 폐기하는 절차가 어려워져 쉽게 살 수도 없어요. 그나마 특별활동 체육 선생님이 주 1회 오셔서 다양한 도구를 경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놀잇감을 대여해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이처럼 교사들은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운영 중 놀이를 풍부하게 하는 놀잇감(도구)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교사들의 욕구와 다르게 미흡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3)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 외부 환경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어린이집 담장 밖에서 실외놀이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확인하였다. 영유아들의 걸음 속도, 날씨, 이동 시간, 이동 중 건너는 건널목의 개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계획하였다. 놀이터의 조합 놀이대 수준도 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유아들이 실외 활동을 진행하는 어린이집 인근의 놀이터의 조합 놀이대는 수준이 높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수준이 높아 영아들에게 위험해요. 복합 놀이대 계단에 오르다가 만 2세 영아가 떨어져서 팔꿈치 탈골로 깁스를 한 적이 있어요. 이후에는 주변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주로 실외 활동을 진행해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저희가 이용하는 놀이터는 양쪽으로 입구가 있어서 영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출입구에 안전바가 없어서 교사들이 양쪽에 서서 꼭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놀이에 참여하기보다는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D 교사 1차 면담, 2023. 01. 10)

성인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나 벤치 등이 함께 있어서 영아들이 타면 바로 사고로 이어졌어요. 근무하는 단지 내 놀이터, 근처 놀이터에 대부분 성인들의 운동기구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영·유아들의 신체 조건에 적절하지 않아 항상 제지하고 있어요. 놀이터 설계 시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에 성인들의 운동기구가 분리되었으면 좋겠어요.

(J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수준을 나눠 설치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의 놀이터가 영·유아들보다 초등학생의 발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제약을 두고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영·유아들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춰 봄·여름에는 이용의 한계선을 두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가을·겨울에 도전하도록 권유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놀이터의 수준에 대해 고민하고, 실외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안전도 확보하며 이동하고 실외놀이를 실행해야 하는 데서 어려움을 가졌다.

놀이터까지 건널목을 여러 개 건너고, 언덕에서 차가 내려올 때는 사고가 날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중략) 저희가 이용하는 놀이터는 양쪽으로 입구가 있어서 영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출입구에 안전바가 없어서 교사들이 양쪽에 서서 꼭 지켜야 했어요. 그러면 놀이에 참여하기보다는 관찰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D 교사 1차 면담, 2023. 01. 10)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인근 놀이터 이용 시에는 신호등 없는 짧은 건널목을 건너야 해요. 다행히 바깥 놀이를 진행하는 오전 시간에는 차량이 많지 않고 바로 앞 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차 면담 이후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J 교사 2차 면담, 2023. 01. 15)

D 교사처럼 실외 공간으로 이동할 때뿐 아니라 놀이 중에도 영·유아들이 공간을 벗어나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 교사들의 주의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놀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놀이공간을 벗어나는 영·유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해서 놀이의 참여도가 줄어들었다.

부모님들이랑 약속된 요일에만 바깥 활동을 하기로 하였기에 요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눈이 많이 온 날 나가서 아이들과 눈을 맞으며 눈놀

이를 하고 싶었어요. 유아들의 두꺼운 외투와 장갑이나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이 확인한 후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이 운영위원회에 연락하고 부모님들 전원 확인받고 바깥 활동을 나간 적이 있어요. 번거로운 규칙이 있지만 위험 요소를 모두 차단하려는 원의 특성인 것 같아요. 또 바깥에서 활동하기 좋은 봄·가을에는 정해진 두 요일만 나갈 수 있어요.

(H 교사 1차 면담, 2022. 11. 2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담장 밖은 꼭 나가야 하는 곳이며, 꼭 나가고 싶은 곳이지만, 위험한 일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교사들과 영·유아들이 실외놀이공간을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와 영·유아들 간의,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여러 가지 약속을 만들었다. H 교사의 사례와 같이 안전하게 놀이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담장 밖을 벗어나 운영하는 실외 자유 놀이에는 많은 규칙이 존재하였다. 모든 질차는 지켜야 하며 지킬 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 4) 기후 변화로 인해 제한된 실외 신체활동

교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세먼지, 폭염, 폭우, 한파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하여 실외 자유 놀이를 실내 대체 활동으로 대체하여 보내는 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영·유아들이 1년 중 실외에서 놀이하는 날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뜻한다.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육아정책연구소, 2020)과 교사들은 작은 공간에 갇혀 하루씩 버텨나가고 있다.

저희 어린이집은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광장이 멀지만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한 주에 1~2회 정도는 꼭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 한 번도 바깥 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유희실에서 오전·오후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했어요. 2021년 가을에도 미세먼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가 심해질 때와 아이들의 컨디션을 고려하면서 몇 번 나가지 못하고 바로 겨울이 왔어요.

(E 교사 1차 면담, 2022. 11. 10)

2023년 4월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종식 선언 이후 많은 어린이집에서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실외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봄·가을은 짧아지고 폭염과 한파가 지속되는 여름·겨울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실내 유희실과 보육실에서 실내 대체 활동을 운영하게 된다.

오늘 눈이 펄펄 내려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감기로 투약하는 영아들의 부모님이 실외 활동 자제해달라고 하셔서 못 나갔어요. 1차 면담 이후로 3주 동안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B 교사 2차 면담, 2022. 12. 15)

영하권 날씨가 지속되어 실내에서 너무 답답해요. 부모님들도 우려하셔서 12월 내내 실내에서 놀이했어요. 1월 초에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왔을 때 아주 잠깐 밖으로 산책을 다녀왔어요. 목도리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다 챙겨서 나갔는데도 영아들이 놀이터의 구조물을 만지고 “차가워요. 추워요. 들어가요.”라고 불편해해서 바로 원으로 돌아왔어요. 유희실이 넓으면 좋는데 저희는 아파트 거실 크기라서 만 2세 영아들에게는 정말 작은 수준이에요.

(J 교사 2차 면담, 2023. 01. 15)

B 교사와 J 교사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1~3일 정도 짧은 기간이 아닌 B 교사처럼 몇 주

내내 실내에서만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당일이 되어야 알 수 있기에 교구장을 돌리고, 책상 밀어서 공간을 확보했어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체조, 그대로 멈춰라, 카드 뒤집기 게임이에요. 공간은 적게 사용하며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은 사실 많지 않아요. 교사가 알고 있는 놀이 몇 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교사의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너무 중요했어요. 유아들도 부정적으로 감정 표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중재하는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졌죠. ‘못 나가서 이러는 거야, 날씨 때문이야.’라며 탓하게 되었어요. 장마철에는 아이들도, 교사들도 견디는 게 느껴져요.

(E 교사 1차 면담, 2022. 11. 10)

E 교사처럼 교실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유희실보다 작은 공간을 활용하고, 잔디밭보다 높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며, 교사 주도의 놀이 진행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실외에서 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깥 놀이의 본래 목적인 신체 균형 및 조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대근육 활동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 3.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요구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보았는데,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신체활동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와 놀잇감(도구)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린이집 인근에 놀이터가 있다면 이동 거리가 짧고, 차 사고의 위험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놀이터의 수준이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보다 높아 안전사고의 확률이 커져 주 이용자인 영·유아에게 적합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현재 근무하는 원에서 이용하는 아파트 놀이터가 리모델링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연결 부위에 나사가 튀어나와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중략) 요즘 놀이터를 ‘높이 높이’ 설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느끼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많아 영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위험한 게 많아서 오히려 학기 초에는 복합 놀이대는 못 오르게 막는 때도 있어요.

(J 교사 1차 면담, 2023. 01. 15)

아파트 안의 놀이터 미끄럼틀은 파배기 모양인데 높고 천장이 없어서 돌면서 내려오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복합 놀이대에서 영아 팔이 꺾다가 빠진 적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그랬어요. 이후에는 조금 걸어야 하지만 아파트 놀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놀이하고 있어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1. 23)

인근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여 실외놀이 시간 운영하는 교사들은 놀이터의 수준이 학급의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복합 놀이대를 활용하여 놀이할 때 영·유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을 하거나 영·유아들과 함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인근 놀이터까지 멀리 이동하는 경우 많아 안전한 놀이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복합 놀이대와 함께 모래·물을 이용하는 놀이터, 비구조적인 창의 놀이터 같은 다양한 놀이터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전에 근무한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곳이었어요. 실외 공간에는 큰 모래 놀이터도 있었어요. 영·유아들이 수영장처럼 모래에서 헤엄치고 교사도 들어가서 손·발 숨기기, 풀 뜯어서 음식 만들기 같은 어릴 때 했던 놀이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모래놀이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어린이집에서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원에는 실내에 1~2평 크기의 작은 모래 놀이터가 있어요. ‘이 정도가 어디인가?’ 싶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느껴지고, ‘요즘 아이들은 우리처럼 흙 먹고 자라는 공간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E 교사 2차 면담, 2022. 12. 09)

앞서 언급한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도 교사들과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공원, 하천, 광장, 궁궐 등 다양한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자연물 탐색, 산책,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등 신체를 이용한 자유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벗어나 실외의 여러 공간으로 이동할 때와 공간에서 놀이할 때 모두 교사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영·유아들의 놀이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놀이할 수 있는 자연물을 선택해주거나 놀이할 수 있는 공간 정하기, 이동 시간이 증가하여 놀이 시간 줄이기 등 제약을 두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놀이 중심·아동 중심의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하였다.

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닌 업무지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서울시 중구·종로구·강남구에 다수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에요. 이 지역은 업무지구이며 관광지의 색깔이 강해요.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만 어린이들이 그 공간까지 이동하

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사진 찍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노숙자, 흡연구역, 시위, 정치색 짙은 현수막(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무슨 뜻이냐고 질문해요.) 등이 넘쳐나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적응해야 할 환경인 것은 맞지만 어른들의 편리를 위해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설치하였다면 설치한 기업들이나 인지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환경정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E 교사 3차 면담, 2023.09.03.)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함께 어린이집 바깥으로 이동할 때 날씨, 자동차 사고, 영·유아들의 컨디션뿐 아니라 E 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실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교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영·유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보호자였으며, 영·유아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안내자이기도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놀이 시설의 개선뿐 아니라 영·유아들이 마주치는 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을 통해 영·유아들이 위험하지 않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 교사가 근무하는 지역에 실내 공공형 놀이터를 신축하여 개방하였다.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마다 분기당 1회씩, 1년에 최대 4번만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이 있지만 교사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저희 시에서는 실내 공공형 놀이터를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신청을 받고 영·유아 1인당 1,000원의 이용료로 이용이 가능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분기마다 1회씩만 이용이 가능해서 아쉬워요. 그래도 미세먼지나 폭염, 폭우 같은 날씨 변화랑 영아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놀이터 수준 때문에 공공형 놀이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계획이에요.

(B 교사 1차 면담, 2022. 12. 15)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내·외 시설뿐 아니라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대부분이 신체활동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장소가 크지 않기에 계속하여 새로운 교구 구매하는 것에 제약이 많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중 복도 공간을 이용하여 실내 대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놀이 후에 신체활동 교구를 모두 정리하였다. C 교사는 상시로 신체활동 놀잇감(도구)를 제공하고 싶지만 유희실의 크기가 작고, 큰 부피의 놀잇감(도구)는 보관이 어려워 구매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다른 교사들이 같은 교구로 놀이한 방법을 제시해도 다양한 교구가 아니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게 느껴져요. (중략) 놀잇감을 사고 싶은데 사실 신체활동에 필요한 교구들은 부피가 커서 보관할 공간이 적어요. 연구자님이 보내준 사진에서 높고 낮은 평균대, 폭신한 매트 상시로 제공하고 싶은데 유희실의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밖으로 매일 나가고는 있는데 날씨의 제약이 크네요.

(C 교사 1차 면담, 2022. 11. 15)

이미 구성된 실내·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유아들과 신체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들은 지자체, 어린이집, 체육 관련 업체의 협력을 통해 좀 더 실용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집에 보관할 공간이 없기에 신체활동 도구는 구매할 때 원장님, 동료 교사들과 의논을 많이 해요. 큰 사이즈의 설치하는 것보다는 바구니에 정리가 가능한 작은 교구 위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신체활동 도구를 대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거나 특별활동 체육 업체와 연계시켜주면 교사와 아동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놀이

감이 부셔지는 것은 당연하니까 그에 대한 비용 지불이나 위생과 관련해서 청결 관리 같은 것도 포함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F 교사 1차 면담, 2022. 11. 09)

## 2) 신체활동 관련 내용에 초점을 둔 교사 교육

연구자가 면담 중 ‘신체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른 발달영역과 놀이에 비해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영·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조절하며 움직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자극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실외 자유 놀이 혹은 실내 대체 활동은 어린이집 일과에 매일 포함된 시간이므로 ‘영·유아들과 어떤 신체활동을 하면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음 사례의 J 교사처럼 “어느 정도까지 영·유아들의 도전 의식을 북돋고, 신체 발달을 도모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에 관하여 어렵게 느껴지지만 영·유아들과 더 잘 놀기 위해서 “신체 놀잇감(도구)을 어느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같은 놀잇감(도구)으로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하는 교사들이 관찰되었다.

신체활동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령에 적합한 수준의 신체 놀이, 연령에 위험한 신체 놀이’ 같은 내용이에요. 보육실, 흥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유 놀이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신체활동 관련해서는 인터넷에도 자료가 많이 없어서 자료집으로 배포되면 활용할 것 같아요. 더불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재료, 원에서 갖고 있는 놀잇감(도구)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받고 싶어요.

(J 교사 2차 면담, 2023. 01. 15)

이전에 근무한 원에서 특별활동 체육 교사가 유아들에게 “지금 일곱살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더 도전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설명하곤 했어요. 유아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사실 어린이집에도 보유하고 있는 같은 놀잇감(도구)인데 저랑 놀이했을 때보다 아이들은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데 뼈대를 알려주는 교육이나 지침서가 있으면 더 재미있게 몸으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C 교사 2차 면담, 2022. 12. 19)

참여자들 대부분이 C 교사와 J 교사처럼 안전하고 즐거운 신체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나 자신의 활동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을 품고 정확한 지침이나 교육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 대부분 자료를 찾는 곳은 인터넷 자료 사이트나 제4차 표준보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인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적다고 하였다. 교사 혼자 고민하고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하는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긴 밧줄을 챙겨 나가 바닥에 내려놓고 뛰어넘기, 줄넘기, 림보, 나무에 묶어 두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더 재미있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동료 교사들과 놀이를 찾는 편이에요. 교사가 어릴 때 했던 놀이나 동료 교사들의 놀이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H 교사 2차 면담, 2022. 12. 06)

H 교사는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다음의 K 교사는 원장님에 의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교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우이다.

원장님이 신체활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활동 체육 교사와 세미나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균형 잡기’ 주제라면 체육 교사가 관련된 동작, 놀이,

놀잇감(도구) 방법에 대해 보여주었어요. 이후에 교사들이 각 반 연령이나 흥미에 맞게 조절해서 수업을 계획했어요. 직접 아이들과 실행해보고 평가회도 했어요. 이런 과정이 사실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데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이 연령에는 이 놀이가 너무 복잡하구나. 어떻게 하면 단계를 나눌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기간에 담임을 맡았던 유아들의 연령에 적합한 신체활동은 각인 되어서 절대 못 잊어요.

(K 교사 1차 면담, 2023. 01. 09)

K 교사의 경험처럼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 중 소수의 어린이집에서만 주기적으로 교사 장학이 이루어졌다. 장학의 과정에서 우리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 나은 환경이나 지원 방향을 계획하였다. 또한 주어진 실내·외 환경에서 어떤 신체활동이 영·유아들에게 더 큰 즐거움이 있었는지 공유하고, 실행하며 이전과는 다른 놀이로 확장·연계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K 교사는 어린이집 내부의 장학을 통하여 신체활동 방법과 내용에 주목하여 실행하고 수정·보완하였으며 다음 사례의 H 교사는 신체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신체 놀잇감이 비슷한데 다양한 놀이 사례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재단은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통해 사례발표를 해요. 유아반 사례에서는 신체활동 활동이 거의 없고, 탐구나 운동 대회 같은 놀이를 기반한 프로젝트와 같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주목했던 것은 ‘유아들이 놀이를 주도하느냐?’ 였어요. 유아 중심·놀이 중심에서도 유아들의 신체 발달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교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고 느꼈어요. 유아들이 개별차가 있을 뿐이지 당장 기본 동작은 잘 해내기에 신체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H 교사 2차 면담, 2022. 12. 06)

K 교사와 H 교사가 참여한 장학의 형태와 내용은 달라도 어린이집 전체 교사들이 이전보다 영·유아들의 신체 움직임과 신체활동에 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 실행 과정을 거쳐 이전보다 ‘질 높은 신체활동’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실행과 반성적 사고로 연결되는 교사 장학의 형태가 아니어도 면담 참여자들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신체활동 관련 운영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고 싶어 하였다.

I 교사처럼 다른 어린이집의 같은 연령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운영한 신체활동 방법, 주의할 점, 새로 발견 한 점과 새로운 신체활동 놀잇감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사실 전공 서적에서 활동을 찾고 있는데 어려워서 놀잇감에 대한 적용 노하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라고 알려주는 매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 교사 2차 면담, 2022. 12. 19)

누리과정이나 키즈키즈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을 찾아보아도 아주 간단한 방법들뿐이라서 다양한 경험을 한 교사들과 정보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I 교사 3차 면담, 2023. 09. 05)

담임교사들은 업무가 많아서 집합 교육보다는 실제적인 활동을 모은 프로그램 개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실보다는 어린이집 바깥의 잔디밭, 하천 등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특별 활동 체육 교사들과 협업해서 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것도 교사들이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G 교사 3차 면담, 2023. 09. 08)

C 교사, I 교사처럼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영·유아들에게 현재보다 더 즐겁고 긍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대부분 지속적인 교사 교육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집합 교육보다는 어린이집을 벗어나 다

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책자 배부, 아동 체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시범 영상 등 간결하고 정확한 매체를 통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위하여 어린이집 담장 넘어 매일 밖으로 이동하는 교사들과 영·유아들의 경험과 그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한 연구이다.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경험

첫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의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장소를 탐색하고 고려하여 놀이공간으로 선정하였다. 어린이집 울타리 안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경우 영·유아들은 근처 대체 놀이터, 공원, 하천, 아파트의 공용 시설, 회사 빌딩 내 유희 시설 등에서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는 오범주(2019)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내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 앞 주차장, 공터, 인근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동네 도서관, 주민 편의 시설 등을 활용하는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양한 장소의 환경이 영·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여 영·유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다르므로 교사들과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공간과 놀이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회사가 밀집한 도심 속 어린이집의 교사와 영·유아들은 주

변 공원이나 하천에서 실외놀이가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영·유아들은 인공으로 조성된 조경을 관찰하거나 동·식물을 탐색하며 자연의 변화를 느꼈다. 또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은 바람개비·원반·끝차 등 혼자서 끌거나 던지는 등의 소도구를 이용하거나 밧줄, 파라슈트 같은 이동할 때 가볍고 한 번의 영·유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잇감(도구)의 활용이 많았다.

반면에 주거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들은 근처 대체 놀이터에서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보냈고, 복합 놀이대를 이용하여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영·유아들은 아파트 단지 내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같은 공용 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한 작은 공원에서 신체활동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 담장을 넘어 공간을 찾아 매일 이동하는 교사와 영·유아들은 교실과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놀이를 찾고 즐거움을 얻었다. 다양하게 준비된 신체활동의 공간은 영·유아들로 하여금 신체를 움직이도록 자극하고, 공간의 특성을 탐색하면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이연승(2020)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도심의 어린이집, 주거지역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지역은 달랐지만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모두 영·유아들의 컨디션과 안전상의 이유로 실외 신체활동은 주 1~3회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실외놀이 시설이 어린이집 담장 안에 없는 경우 안전한 놀이공간까지 이동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름·겨울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영·유아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에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큰 요인이 된다.

둘째, 교사들은 계절과 날씨의 급격한 변화, 영·유아들의 컨디션에 따라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과

교실, 복도 공간에서 대체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관 내 신체활동 공간으로 유희실, 강당, 교실을 주로 이용한다는 선행연구(강화영, 2009; 김유나, 2022; 오범주, 2019)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유아들과 유희실에서 자유롭게 달리기, 평균대에서 점프하기, 흔들말 타기, 공놀이 등의 크기가 큰 신체활동 도구(놀잇감)을 이용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였다. 반면에 교실에서는 유니바, 빌리보, 고깔 등 작은 크기의 도구(놀잇감)를 이용하여 팀 게임이 주로 이루어졌다.

김유나(2022)에 따르면 실내 대체 활동 시간에 70.8% 이상 기구를 사용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 영·유아들은 실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신체활동 기구를 이용하여 또래와 함께 협동하기, 높은 수준으로 단계를 높이기 등의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내부·외부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경험하도록 지원하였다.

## **2)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

첫째, 교사들은 근무하는 원내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지만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여 영·유아들의 즐거운 놀이와 발달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영·유아들의 흥미와 안전, 이동 거리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실외 자유 놀이공간을 선택하지만 폭염, 폭우, 고농도의 미세먼지, 영·유아들의 컨디션, 지역사회 상황 등으로 어린이집 내부에서 대체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린이집 내부의 보육실, 유희실, 복도 등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였다. 김유나(2022)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주 2회(32.5%) 실내 대체 활동을 실시하며, 73.4%의 응답자들이 유희실과 강당 같은 기관 내 신체활동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답변한 것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교사들은 유희실과 보육실의 작은 크기로 인해 실내 대체 활동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유희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영·유아들에게 큰 동작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교사가 있었다. 보육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유희실로 공간을 확장하여 놀이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어린이집 내부의 긴 복도를 유희실이라 지칭하고 놀이하거나 작은 평수의 공간에 평가인증을 위한 놀잇감 개수만 만족시킨 기관도 있었다. 영유아보육법(2024. 6. 27 개정) 어린이집 설치 기준(제9조 관련)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은 영유아 1명당 2.6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은 보육실, 거실, 공동 놀이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는 보육실, 거실, 공동 놀이실을 포함하는 면적으로 따로 구분되어 각 공간별로 정확한 크기를 명시하지 않기에 현재 모든 어린이집의 유희실의 크기가 다르게 설치된 이유이다. 이 때문에 연구의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유희실 크기가 모두 달랐으며 유희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사들은 신체활동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제도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어려움은 이연승 등(2020)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넓고, 질적 측면도 고려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 맥락과 같다. 어린이집 실내·외 공간마다 확보해야 하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실내·외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크기나 위치의 제약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체활동 도구(놀잇감)가 한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어린이집 내·외부에 신체활동 도구나 놀잇감을 보관하는 장소의 크기, 어린이집 담장 넘어 놀이 장소까지 도구나 놀잇감을 옮기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신체활동 놀잇감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영·유아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창의적인 놀이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 같은 놀잇감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지루한 경험으로 인식하게 된다. 신체활동에 활용하는 흥미로운 매체는 놀이의 즐거움을 더 할 수 있다는 이연승 등(202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어린이집 실내·외에 놀잇감(도구) 보관하는 공간의 재구성 등을 통해 영·유아들이 신체활동 경험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어린이집에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경우 교사들과 영·유아들은 놀이할 공간을 찾아 바깥으로 이동한다. 교사들은 어린이집 울타리 밖의 위험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외 자유 놀이를 계획·실행하였다. 어린이집 근처의 대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교사들은 놀이터의 수준이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과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주변의 공공 놀이터의 적합성에 대해서 조사한 최숙자(2021)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중 다수의 교사들이 ‘놀이기구의 높이나 크기가 영아들에게 커서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교사들은 어린이집과 놀이공간까지 이동할 때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거나 차 사고의 위험성 높은 것도 강조하였다.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놀이공간에서 영·유아들이 약속한 지점을 벗어나 차도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어 교사들이 각별하게 주의하며 실외 자유 놀이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실외놀이 시설의 수준, 차 사고 외에도 이동하며 만나는 행인들, 위험한 자연물들과 사물들,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 실종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사와 영·유아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어린이집 주변 환경의 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넷째, 폭염, 폭우, 한파,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급격한 기후 변화와 독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같은 유행성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영·유아들이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동식물 탐색, 실내와는 다른 놀이 행동의 양상이 감소하고 있다. 여혜옥 (2017)의 연구결과 실내·외 놀이 환경에 따라 놀이 행동과 신체활동성 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언급하였다. 실내에서는 ‘앉기’의 유형이 주로 나타났으나 실외에서는 ‘뛰기, 달리기, 타기, 오르기’와 같은 비교적 활발한 유형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내·외 놀이 환경에 따라서 영·유아의 놀이 행동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에 실내와 실외의 균형 있는 신체활동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3)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요구**

첫째, 어린이집 담장 밖의 실외놀이 공간과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여러 환경의 변화였다. 교사들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대체 놀이터의 시설 변경, 실외놀이 공간까지의 이동 거리, 공간 이용이 불확실한 점, 실내 유희실의 작은 크기 등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영·유아들의 신체활동이 질 높은 수준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외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외놀이를 촉진하고자 하더라도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 등 놀이 환경의 요소가 빈약하여 실외놀이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이 같다(김명순 등, 2022; 임진형 등, 2017). 김유나(2022)의 연구에서는 실내 대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필요가 가장 큰 요구도를 나타냈다. 앞선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놀이 공간의 질적 수준에 따라 놀이의 양상이 변화할 것이므로 연구의 참여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실외 대체 놀이터, 어린이집 실내의 유희실 크기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내·외부의 변화를 통하여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신체활동의 수준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신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들과 놀이하는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실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활동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수준과 방법인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였다. 교사들 대부분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는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교사들은 ‘우리 반의 신체활동이 영·유아들의 신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느꼈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교사들은 한 방향의 교사 교육뿐 아니라 특별활동 체육 교사, 동료 교사들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의지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신체활동을 제공하고 싶어 하였다. 이는 이연승 등(2020)의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교사 교육과 체육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적 교수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마다 적절한 신체활동 지도서 혹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영유아에게 보다 균형 잡힌 실내·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질 높은 신체활동 운영을 위해 아이디어와 실천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실외 자유 놀이와 실내 대체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실외놀이 환경이 다르게 나타났다. 도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는 광장, 궁궐, 건물 내 유희 시설 등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소도구를 활용한 신체활동과 동·식물의 탐색이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주거지역의 어린이집은 인근의 놀이터를 대체 놀이터로 활용하여 조합 놀이대를 오르거나 내려오는 등의 신체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집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 놀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본 결과 실내 유희실의 작은 크기, 놀잇감(도구) 보관과 이동 방법의 어려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외부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심·주거지역에 위치한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날씨, 미세먼지, 영·유아들의 컨디션, 전염 질환 등을 고려하여 실내에서 대체 활동 운영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체 활동은 보육실과 유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집마다 유희실의 크기 모두 달라 신체를 움직이고 도전하려는 영·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집 내부의 유희실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신체 발달을 위한 여러 수준의 놀잇감(도구)의 구비와 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실외놀이 공간으로 이동 거리가 먼 경우에는 놀잇감(도구)를 챙겨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실내·외 환경과 놀잇감을 제공하여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싶어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실외에서 놀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깥 놀이의 본래 목적인 신체 균형 및 조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대근육 활동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내외 신체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살펴본 결과, 먼저 신체활동에 적합한 안전한 장소와 놀잇감(도구)을 요구하였다. 교사들은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근 놀이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여 실외놀이 시간 운영하는 교사들은 놀이터의 수준이 학급의 영·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터와 함께 모래·물을 이용한 놀이터, 비구조적인 놀이터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어린이집 주변의 공원, 하천, 광장, 궁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자연물 탐색, 산책,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놀이에 제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날씨, 자동차 사고, 영·유아의 컨디션 등을 고려하여 실외놀이를 운영하기 위해 놀이 시설과 환경정비를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 중 이용하는 놀잇감(도구)의 다양성을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요구하였다. 교사들은 신체활동 놀잇감(도구)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양하고, 큰 부피의 놀잇감(도구) 구매를 망설이기에 지자체, 어린이집, 체육 관련 업체의 협력을 통해 좀 더 실용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영·유아들과 신체활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교사들이 자료를 찾는 인터넷 사이트와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고,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과 달라 적용하기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질 높은 신체활동’을 위하여 집합 교육보다는 어린이집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책자 배부, 아동 체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시범 영상 등 간결하고 정확한 매체를 통한 교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실외와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경험과 노력, 요구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어린이집의 실외놀이 시설 및 유희실 공간을 구성하고 활동 지원 계획 및 방향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실외 자유 놀이와 실내 대체 활동에 실제적인 운영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실행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신체활동 관련 내용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복합 놀이대가 설치된 놀이터, 잔디 광장, 유희실, 교실 등 각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통해 어린이집 실내·외에서 질 높은 신체활동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화영 (2009). *보육시설 유형별 신체활동 현황 및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미 (2008). *신체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재곤, 손경환 (2018). *운동발달이론을 통한 유아체육의 이론과 실제*.
- 고효진 (2018). *실외놀이터와 실내놀이터에서 만 4세 유아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 한미현, & 김영주. (2002). *영유아 보육론*.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9).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기금심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숙, 박진아, 최윤경, 임현정, 이세용 (2016).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1): 프로그램 효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대원 (1996). *영아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사자의 요구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 김지연, 최현희 (2019). *서울시 어린이놀이터의 질적 수준과 아동의 놀이행동 및 신체활동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9(2), 105-124.
- 김명화 (2015).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놀이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1), 45-67.
- 김미진 (2008). *소집단 신체 표현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창의적 신체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2016). *직장어린이집 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49(0), 28-33.
- 김유나 (2022). *영·유아 교사의 실내 대체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운영현황*.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숙 (2019). 유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내놀이 공간 현황분석 연구 :경기도 S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지원연구, 4(1), 95-110.
- 김주연, 김경숙 (2011). 유아교사의 신체활동 지도실제와 지도스트레스. 생태 유아교육연구, 10.(1), 51-174.
- 김형우 (2017). 유아체육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김언아, 홍희란 (2004).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 노주형, 이진, 고민숙, 김용주, 설인준, 문진화 (2016). 유아 스마트기기 사용 및 이용수준 현황.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4(3), 157-163.
- 박미숙 (2014).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 운영실태 및 교사의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혜. (1996). 저널 쓰기를 통한 반성적 사고 개발. 유아교육학논집, 15(3), 121-140.
-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및 고시문.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아동 종합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과.
- 송순옥, 성연정 (2017). 그림책을 활용한 만 2세 영아의 신체활동이 기본적인 동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45-66.
- 신동주, 신혜영, 박소연 (1997). 실외놀이터 환경 변화가 유아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삼성복지재단 제5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8-210.
- 여혜옥 (2017). 실내·외 놀이 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과 신체활동성 간

- 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테희 (2010). *실내·외 자유놀이시간에 따른 유아의 신체활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애, 진연경 (2019). *유아체육교육의 연구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965-990.
- 유지안, 김은심 (2016). *자연공간과 통합된 유아동작활동 실행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3), 165-191.
- 육아정책연구소. (2020). *2020년도 유아교육기관 이용 현황 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이봉선. (2008). *신체 발달과 유아 놀이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8(1), 45-67.
- 이고훈 (2005). *유아의 신체활동이 유아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 신동주, 엄정애 (2006).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실외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실태분석*. *교육과학연구*, 37(2), 159-185.
- 이동연, 김지연 (2021). *개방적 놀이재료 제공에 따른 만 5세 유아 놀이행동의 차이 분석*. *유아교육연구*, 41(5), 33-55.
- 이명란 (2015). *세상이 작은 교실, 유치원 바깥놀이*.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0(0): 235-239.
- 이상은 (2007). *유아교육기관의 실외놀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새별, 김지연 (2019).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환경의 질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위험감수놀이행동*.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56-75.
- 이수진, 서현아, 한희정 (2013). *또래협동 신체활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 및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1), 81-101.
- 이숙재 (1994). *어린이 놀이터와 놀이 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14(1), 109-132.

- 이연승, 양혜련, 변선주, 조경미 (2020). 좋은 신체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40(5), 335-362.
- 이승주 (2024). 그림책과 연계한 신체표현활동이 유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영유아교육실천연구, 2(1), 59-85.
- 이창균 (2017). 아파트 단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보호자 인식 분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혜 (2022). 중소도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실외놀이터의 질적 수준과 놀이환경 차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형, 김경미, 진미선 (2017). 유아교육기관 실외놀이 운영에 대한 교사의 경험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 467-474.
- 장미희 (2024). 신체활동이 유아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주희 (2016). 직장어린이집 교사의 실외놀이에 대한 인식과 실외놀이 운영 실태 (서울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경 (2008). 어린이집 영아반 실외놀이 운영실태와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 (2023).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만 5세 또래 관계 증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 박은혜 (2014). 유아의 그림을 통해 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에 대한 이미지. 유아교육학논집, 18(2), 35-57.
- 조경희, 신동주 (1999). 실내,외 놀이환경에 따른 유아의 놀이형태에 관한 연구. 어린이교육, (1), 128-145.
- 채영란, 정재은, 지성애 (2012). 동시를 활용한 신체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

- 능력과 신체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6(6), 103-126.
- 최숙자 (2021). 가정어린이집 영아의 바깥놀이 환경 및 운영 실태.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아 (2010). 규칙적인 체육프로그램 참여가 유아의 기초운동기능과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효미, 이정원, 박은정, 김태우 (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한규령 (2005). 유아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주연 (2011). 그림책을 활용한 신체표현활동이 만 3세반 유아의 어휘력,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selmo, S. & Franze, W (1995).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nd ed.)*. Prentice Hall.
- Bogdan, R. C.,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Pearson.
- Frost, J. L. (1992). *Play and playscapes*. Delmar Publishers.
- Frost, J. L., Wortham, S. C., & Reifel, S. (2005). 놀이와 아동발달 (양육승외 공역). 학지사. (원서 출판 연도 2005)
- Gallahue, D. L. (1993). Motor development and movement skill acquisition in childhood education. In B. Spod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 24 - 41).
- Gallahue, D. L. (1995). *Understanding motor development: Infants, children,*

- adolescents, adults* (4th ed.). McGraw-Hill.
- Gallahue, D. L. & Donnelly. (2003). *Developmental physical education for all children* (4th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atch, J. A. (2008). *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atz, L. G. (1972). *Development Stage or Preschool Teach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73(1).
- Lampert, L. T. (1999). *A differentiated goalstructure framework for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68(3), 29-35.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turm, R. (2007). *The effects of community design on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3), 486-493.
- Wellhousen, K. (2003). *실외놀이*(신화식 외 공역). 창지사. (원서 출판 연도 2003)

# ABSTRACT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and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eachers.

MINJI SO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Su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of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and analyze the difficulties and demands of teachers.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implications for efficient methods of operating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The research questions set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reality of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2. What difficulties do teachers experience when operating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3. What are the demands of teachers for activating physical activity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In this stud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childcare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from October 2022 to October 2023.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form of 1:1 individual interviews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participants, and 2-3 interviews were conducted per teacher, for a total of 28 interviews. The researcher repeatedly read the interview transcripts, interview notes, and researcher journals to categorize and interpret the content.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is study, one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ert and two childcare teachers with master's degre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consulted on the interview content, data analysis, etc., and were reflected in the study.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and interpretations were reviewed by one early childhood teacher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terpret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by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First,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explored various place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 of infants and toddlers and selected them as play spaces in order to operate outdoor free play time. In cases where there were no outdoor play facilities within the daycare center fence, infants and toddlers spent their outdoor free play time in nearby alternative playgrounds, parks, rivers, apartment complex public facilities, and unused facilities in company

buildings. The outdoor play spaces available for use varied depending on the area where the daycare center was located.

In addition, the play patterns of infants and toddlers varied depending on the outdoor space where physical activities took place. When spending free outdoor play time in parks, lawn squares, etc., they explored plants and animals, felt the changes in nature, and used small tools such as pinwheels, discs, and pull carts to pull or throw them alone. In addition, toys (tools) that were light enough for teachers to carry and move, such as ropes and parachutes, and that all children in the class could participate in were used a lot. When spending free outdoor play time in an alternative playground near the daycare center, physical activities were carried out using combination play platforms and swings.

Depending on the rapid changes in season and weather, and the condition of the children, teachers sometimes conducted alternative activities indoors instead of outdoors. Physical activities using the body, such as hide-and-seek and catch, were mainly carried out using fixed equipment such as balance beams and trampolines installed in the playrooms, classrooms, and hallways inside the daycare center.

Second,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experienced various difficulties when operating physical activities indoors and outdoors. First, there were many things to consider when operating alternative indoor activities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daycare center and playroom. Teachers also operated play by installing toys (tools) to secure a space where infants and toddlers can move, but

they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because the space for indoor and outdoor physical activities was limited. They felt difficulties because the physical activity tools (toys) that could be provided to infants and toddlers were limited due to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space where indoor and outdoor physical activities were performed. They felt difficulties in moving toys when teachers and infants and toddlers moved together outdoors, and they hoped for the continuous deployment of assistant teachers. They said that it was difficult to purchase toys (tools) of various sizes and sizes indoors due to the narrow storage space for toys (tools). When using an alternative playground near a daycare center, teachers said that the level of the playground did not match the developmental level of infants and toddlers, so there was a high risk of safety accidents, and in some cases, they set the range that infants and toddlers could use. In addition, they responded that they considered various factors such as crosswalks, cars, and pedestrians that teachers encountered while leading infants and toddlers to the outdoor play space. Meanwhile, it was reported that the number of days when alternative activities are performed indoors is increasing due to rapid climate changes such as heat waves, heavy rain, cold waves, and high concentrations of fine dust, as well as the condition of infants and toddlers and infectious diseases. Teachers stated that balanced physical activity management is necessary because the play patterns of infants and toddlers are different when operating physical activities indoors and outdoors. Thir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needs of teachers working in daycare center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for operating

indoor and outdoor physical activities are as follows. Teachers felt that the facilities of alternative playgrounds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al level of infants and toddlers need to be changed, and that there should be an alternative space that can be used in situations where the distance to the outdoor play space is long or space use is uncertain. In addition, it was emphasized that if the size of the indoor playroom is too small, it is difficult to engage in physical activities, so if an indoor playroom of an appropriate size is provided, the physical activities of infants and toddlers can be improved to a high level. In addition, it was stated that teacher education is necessary so that teachers can support high-quality play when play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Teachers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go beyond passive lecture-style teacher education to research in various ways, such as collaboration with speci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fellow teachers, and wanted to provide positive physical activities to infants and toddlers through th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ussed the experiences, efforts, and needs of teachers who operate physical activities outdoors and indoors in kindergartens without outdoor play facilities, focusing on specific cases. This discussion can provide useful basic data for organizing outdoor play facilities and playroom spaces in kindergartens and for activity support plans and directions.

## 부 록

###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의 실제와 교사들의 어려움 및 요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 배지희

연구자 : 송민지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송민지입니다.

본 연구는 실외놀이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하는 담임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구 기간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동안 연구 참여자와 약 2회의 심층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성 녹음을 통한 자료 수집 및 연구자의 현장 노트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교사 이름 · 근무 기관 등 개인 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익명으로 기술하여 선생님의 사적인 정보는 절대 공개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만 확인할 것이며, 본 연구가 끝난 후에는 폐기할 계획입니다. 연구 과정 중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십시오.

2022년      월      일

연구 참여자 :

(서명)